

제3회 강릉단오제 발전을 위한 축제 포럼

2014 강릉 단오문화 조명 세미나

— 유네스코 등록 9주년에 즈음하여 —

차 례

개회사 / 이광식 관동문학회장 • 4

축 사 / 최종설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위원장 • 5

굴원의 떡라수에서 강릉 남대천으로 • 7

— 단오를 노래한 시 연구

발제: 이홍섭(시인, 문학평론가)

약정토론: 남진원(평론가), 박광남(시인)

강릉단오제 관련 설화와 한국현대소설 • 21

— 모티프의 수용과 변용 양상을 중심으로

발제: 김정남(가톨릭관동대 교수)

약정토론: 조관선(소설가), 권순민(시인)

강릉단오제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고찰 • 39

발제: 조해진 (가톨릭관동대 교수)

약정토론: 김문란(강릉문화의집 실장),
김동찬(강릉단오제위 상임이사)

부록 • 59

부록 1. (단오 관련 시 전문)

부록 2. (소설, 범일국사)

인 사 말

지난 2005년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강릉단오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민속학적 접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역시 단오제 기간 동안 학술세미나를 통해 적지 않은 관련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본적으로 이런 전례의 연구 발표 행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강릉단오제에 관한 연구는 결코 다했다 할 수 없는, 지속성을 가져야 할 깊이를 지닌 문화 자원인 것입니다.

그 속성상 민속학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만 동시에 다른 방식의 연구, 민속학 개념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인 문화인류학적 접근도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 같은 접근이 없지 않았습니다. 국제학술대회의 논의가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전제 아래 또 하나의 방식이 있다면 강릉단오를 소재 혹은 주제로 삼은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라 믿습니다. 강릉단오 관련 설화의 현대 소설로의 전환 및 변주, 강릉단오를 주제와 소재 삼은 시들, 스토리 라인이 있는 것으로 혹은 서정성을 드러낸 것으로, 혹은 강릉 출신 인사 또는 특히 강릉의 문화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지닌 역외의 문인들에 의해 실로 다양한 문학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쯤 일차 정리 및 평가가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다양한 장르에서, 예컨대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강릉단오를 연구하여 지닌 바의 그 깊은 의미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관동문화회는 이점에 유념하여 이번 세미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수 년간 지속할 때 새로운 문학적 해석을 통한 강릉단오의 진면목, 참뜻 나아가 이념적, 철학적, 이론적, 역사적, 문화사회적 본의가 온전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 지난하지만 의미 있는 작업에 성과 있기를 바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한 (사)강릉단오제위원회의 높은 식견을 평가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후원에 힘입어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에, 또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연구하고 발표하는 발제자들과 약정 토론을 맡아주신 문인 학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11월 24일

관동문화회장 이 광 식

축 사

안녕하십니까? 강릉단오제위원회 위원장 최종설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입니다.

먼저 제3회 강릉단오제 발전을 위한 축제 포럼의 일환으로 강릉단오문학 조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강릉단오제는 많은 이야기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강릉단오제를 비롯한 강릉문화에 대한 문학적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향토성과 정체성을 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관동문학회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문학 속에 깃든 강릉단오제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강릉단오문학에 대한 관심과 발전 그리고 단오문화 콘텐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강릉과 강릉단오문학에 애착을 갖고 계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강릉단오문학을 통해 강릉단오문화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들이 많이 논의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천 년을 이어온 강릉단오제에 대한 그동안의 문학적 활동 및 그 결과물을 연구하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의 계승 및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관동문학회원 분들과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위원장 최 종 설

굴원의 먹라수에서 강릉 남대천으로

- 단오를 노래한 시 연구

이홍섭 (시인, 문학평론가)

1. 들어가는 말

강릉단오제는 지난 2005년 유네스코가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으로 선정하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거듭났다. 특히 강릉단오제는 중국단오절과의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생적이면서 독자적인 전통축제로 공인받게 되었다.

그동안 강릉단오제의 기원과 역사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주로 민속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러한 연구는 강릉단오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런 의미에서 강릉단오제는 민(民), 관(官), 학(學)이 힘을 합쳐 큰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힐 수 있다.

단오를 소재로 한 우리나라의 역대 시들을 분석하기 위해 출발하는 이 글은, 앞선 연구자들의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 단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고, 시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강릉 출신의 현대 시인들이 쓴 작품들을 대상으로 삼아 ‘강릉단오’가 시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대 이전의 시인들 중에서는 고려말과 조선초를 살다간 윤곡 원천석(1330~?)을 비롯, 목은 이색(1328년~1396), 사가정 서거정(1420~1488), 매월당 김시습(1435~1493), 교산 허균(1569~1618), 우암 송시열(1607~1689) 등을, 근대 이후의 시인들 중에서는 서정주, 윤희명, 박용재, 이홍섭, 심은섭 등을 선정했다.

근대 이전의 시인들은 단오에 관련된 시들을 많이 남긴 문인들을 중심으로 선정했고, 근대 이후의 시인들은 서정주를 제외하고는 강릉이 고향인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들의 작품을 통해 근대 이전에 단오는 어떻게 인식되어 왔고, 강릉 고유의 단오제가 정착된 이후 강릉 출신 시인들에게 단오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글에서 인용한 한시들은 대부분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을 따랐음을 밝혀둔다.

2.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한시(漢詩)에 나타난 단오

1) 굴원의 절의와 사대부의 단오 인식

고려말과 조선초를 파란만장하게 살다간 원천석은 단오를 소재로 한 많은 시들을 남겼다. 1천여 편의 시가 담겨진 그의 문집 <<운곡시사(耘谷詩史)>>에는 10여 편의 단오 관련 시들이 수록되어있다. 그의 단오시들은 고려말과 조선초 문인들이 단오를 어떻게 내면화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바람 따뜻하고 날씨는 청명한데 / 薰風微軟氣清新
집집마다 문 위에 쑥 사람을 걸어 놓았네 / 萬戶千門掛艾人
창포 술 한 항아리 마주 앉으니 / 靜對菖蒲一尊酒
난초 물가에 홀로 깨었던 신하가 우습구나 / 笑他蘭渚獨酷臣

<단오(端午)>라는 제목이 붙은 이 작품은 당대의 단오 풍속을 잘 보여준다. 애인(艾人)이란, 쑥을 뜯어 사람의 형상처럼 만든 것으로 단옷날에 문에 걸어놓으면 나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고, 창포주 역시 단옷날 마시는 술로, 나쁜 기운과 독을 제거한다고 전해 내려왔다. 창포주는 창포뿌리를 잘게 썰거나 가루를 내어 술에 담가서 발효시켜 마시거나, 창포꽃을 술에 띄워 마셨다.

원천석과 동시대를 살다간 목은 이색의 시 <단오(端午)>에도 “쑥잎으로는 인형 만들어 문 위에 올리고 / 창포꽃은 술거품에 섞여 금잔에 드누나 (艾葉扶翁上瓊戶 菖花和蟻入金卮)라는 구절이 있고, 사가정 서거정(1420~1488)의 시에도 ”쑥대강이로 무엇 하러 허리 가득 쑥을 차나 / 창포나 잘게 썰어 막걸리에 띄워 마셔야지 (蓬頭何用艾盈腰 可切青蒲泛白醪)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표현방식은 이 시대에 단오를 소재로 한 시들의 한 전형으로 보인다.

위 시의 마지막 구절은 중국 단오절의 중심인물인 굴원(屈原)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굴원은 초나라 때의 문인으로 소인들의 참소를 입고 조정에서 쫓겨나 못과 강가를 떠돌다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음력 5월 5일에 상강(湘江)의 지류인 먹라수(汨羅水)에 투신하였다. 그 후부터 굴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해마다 5월 5일이면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이를 단오절의 유래로 삼는다. 중국 단오절의 핵심 풍속인 용선(龍船) 축제는 굴원의 유체를 찾던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서거정의 시에 등장하는 구절은 굴원의 초사 <이소(離騷)>에 나오는 “집집마다 흰
썩을 허리에 가득 참이여, 그윽한 난초는 찰 수 없는 것이라 하네. [戶服艾以盈腰兮 謂
幽蘭其不可佩]”라는 구절에서 나온 것이고, 원천석의 시에 등장하는 “난초 물가에 홀로
깨었던 신하가 우습구나 (笑他蘭渚獨酷臣)”라는 구절은 <어부사(漁父辭)>에서, 굴원이
궁에서 쫓겨나와 못가에서 읊조리다가 한 어부를 만나, “모든 사람들이 다 취해 있는데
나 홀로 깨어있네.”라고 말한 대목을 변주한 것이다.

이처럼 단오와 굴원을 관련하여 노래하는 것은 충직과 절의를 숭상하는 조선조 사대
부들의 전형적인 작시 방법이었다.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었으면서도 끝내 그를 만나주
지 않은 원천석이 굴원의 삶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이러한 내면의 만
남은 조선조 사대부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시를
쓴 문인이 서인 노론의 영수였던 우암 송시열이다.

백발의 외로운 신하 이 섬 속에 있지만 / 白首孤臣此島中
어찌 길 막혔다 방광하며 울겠는가 / 何須放曠哭途窮
대밭에 바람 이니 물소리 멀고 / 風鳴竹塢泉聲遠
산성에 달 비치니 바다도 백색이네 / 月出山城海色空
상상견대 초강 사람 다투어 건너련만 / 緬想楚江人競渡
가없구나 고향 소식 통할 길 없네 / 遙憐鄉國信難通
배회하며 평소의 뜻 생각하니 / 徘徊永念平生志
아홉 번 죽은들 어찌 충효를 잊으리오 / 九死寧忘孝與忠

손자가 쓴 단오절 운을 차해서 쓴 이 작품에서 송시열은 굴원의 ‘절의’를 ‘충효’라는
유교사회의 기본덕목으로 확장시킨다. 이 시에 등장하는 초강 사람 (楚江人)은 굴원이
물에 투신해 죽은 5월 5일이 되면 갈대 잎으로 밥을 싸서 제사를 지내는 지역민들을 말
한다. 송시열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유배지에서도 굴원을 떠올리며 끝까지 ‘충효’를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다. 위의 작품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단오’가 어떻게 인
식되어왔는가를 잘 보여준다.

한편 원천석은 단옷날의 풍속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작품 <단오우음 (端午
偶吟)>을 남기기도 했다.

신라에서는 이 날을 수리(車)라 불렀는데 / 新羅是日號爲車
주군(州郡)마다 풍속이 한결 같지 않았다 / 州郡鄉風不一科
이 고을에선 올해 들어 옛 풍속을 없앴으니 / 此邑今年除古格
왕가의 오랜 은택 그 여파가 끊어졌네 / 王家舊澤絕餘波

이 작품에서 원천석은 신라에서는 단오를 ‘수리’라고 불렀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수리(車)는 수레바퀴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곧 태양을 의미한다. <<삼국사기>> 권2 문무왕조에도 등장하는 이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단오의 기원을 수릿날 축제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주군마다 풍속이 한결 같지 않았다”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단오의 풍속은 고려말, 조선초에도 지역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전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굴원 고사를 중심으로 단일화된 중국의 단오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원천석의 작품은 절의를 중요시 여기는 사대부들과, 민간의 풍속을 이어가는 일반 민중들의 단오 인식이 달랐음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중화사상에 젖어있던 조선조 사대부들은 단오를 굴원의 고사와 연관 지어 받아들였으나, 일반 민중들은 자기 지역의 풍토에 맞게 독자적으로 풍속을 이어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강릉단오제의 독자성도 이러한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월당 김시습은 단오의 풍속들을 다채롭게 활용하여 감각적이면서도 자신의 심사를 잘 드러낸 작품을 남겼다.

좋은 명절날 난초탕에 목욕하며 기뻐하는데 / 佳辰相喜浴蘭湯
내리던 매雨が 막 개어 각서 맛이 향기롭네 / 梅雨初晴角黍香
사람의 일 얽히기는 채색실 감긴 것 같은데 / 人事縈如繹絲縷
세상 물정 쓰잡기는 창양 머금은 것 같네 / 世情苦似服昌陽
석류 그림자 돌아가도 꽃은 아직 어여쁘고 / 安榴影轉花猶嫩
고운 갈포에 바람 가벼워 해는 정말 길구려 / 絺葛風輕日正長
천년 옛 초나라 강에는 남은 한 서려 있으니 / 千古楚江遺恨在
몇 장 글 읊고 나서 대나무 평상에 기대 있네 / 些章吟罷倚筠床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난초”, “각서”, “채색실” 등은 단오를 노래한 작품들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들이다. 김시습은 이와 관련된 풍속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단오날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각박한 세상 물정과 한 많은 자신의 심사를 잘 녹여내고 있다. 특히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굴원의 한(恨)을 노래하면서도 한 속에 빠져들지 않고 시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이 점에서 극단적으로 ‘충효’를 강조한 송시열의 작품과 큰 차이가 있다.

2) 허균의 단오 인식과 산신제

허균은 강릉단오제를 논의함에 있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 이유는 그가 쓴 <대령산신찬 병서 (大嶺山神贊 並書)> (<<성소부부고>> 권14, 문부 11) 때문이다.

계묘년(1603, 선조36) 여름이었다. 나는 명주(溟州 지금의 강릉)에 있었는데, 고을 사람들이 5월 초하룻날에 대령신(大嶺神)을 맞이한다. 하기에, 그 연유를 수리(首吏)에게 물으니, 수리가 이렇게 말하였다. “대령신이란 바로 신라(新羅) 대장군(大將軍) 김공유신(金公庠信)입니다. 공이 젊었을 때 명주에서 공부하였는데, 산신(山神)이 검술(劍術)을 가르쳐 주었고, 명주 남쪽 선지사(禪智寺)에서 칼을 주조(鑄造)하였는데, 90일 만에 불 속에서 꺼내니 그 빛은 햇빛을 무색하게 할 만큼 번쩍거렸답니다. (중략) 그러다가 죽어서는 대령의 산신이 되어 지금도 신령스러운 이적이 있기에, 고을 사람들이 해마다 5월 초하루에, 번개(旛蓋)와 향화(香花)를 갖추어 대령에서 맞아다가 명주 부사(溟州府司)에 모신답니다. 그리하여 닷새 되는 날, 갖은 놀이[雜戲]로 신(神)을 기쁘게 해 드린답니다. 신이 기뻐하면 하루 종일 일산[蓋]이 쓰러지지 않아 그 해는 풍년이 들고, 신이 화를 내면 일산이 쓰러져, 그 해는 반드시 풍채(風災)나 한재(旱災)가 있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상하게 여겨, 그 날에 가서 보았다. 과연 일산이 쓰러지지 않자, 고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경사롭게 여겨 서로 손뼉 치며 춤을 추는 것이었다. 내 생각건대, 공은, 살아서는 왕실에 공(功)을 세워 삼국 통일의 성업(盛業)을 완성하였고, 죽어서는 수천 년이 되도록 오히려 이 백성에게 화복(禍福)을 내려서 그 신령스러움을 나타내니, 이는 진정 기록할 만한 것이기에 드디어 다음과 같이 찬(贊)한다.

가득하다 귀족(貴族)의 후손이여 / 猗紫纓裔

썩썩하고도 우람스럽도다 / 趨趨桓桓

나라의 용장되어 / 爲國虎臣

북채 들고 단에 오르도다 / 提抱登壇

(중략)

이제 수천 년이 되었건만 / 今數千年

대령산 꼭대기에서 / 乃享廟食

아직도 제사 받아 / 于闕之顛

해마다 드리는 분향 / 歲時芬苾

누구라서 감히 소홀히 하라 / 疇敢以慢
 공의 녀은 어둡지 않거니 / 公靈不昧
 복 내림도 큼도 커라 / 降福簡簡
 구름 타고 바람결에 / 雲馬風車
 살포시 오네 / 颯然而來
 오곡은 무르익어 풍년 들었고 / 穀登歲熟
 백성에겐 재앙 없어 / 民不沴災
 동해바다는 넘실넘실 / 溟漲洋洋
 오대산은 굽이굽이 들쭉날쭉 / 五臺鬱鬱
 천추 만대에 / 千秋萬歲
 향화 어이 그치리오 / 香火罔缺
 이 몸 또한 공과 같은 겨례요 / 余忝同族
 또한 같은 강릉 백성이기에 / 亦惟溟氓
 내 이제 송 지어 / 刊頌以揚
 우리 신명 찬양하노라 / 惟我神明

허균이 그의 나이 34세 때 강릉의 풍속을 접하고 쓴 이 글은, 허균 당대 대관령의 산신이 김유신이었음을 입증해주는 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당시 허균이 본 ‘산신제’가 당대 사람들에게 ‘단오’로 인식되었는가 하는 점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정룡은 강릉단오제 연구를 집대성한 <<강릉단오제 현장론 탐구>>(국학자료원, 2007)에서 허균의 이 글을 인용한 뒤에 “이러한 기록을 살피건데 지금부터 400여 년 전에는 강릉단오제 주신격이 김유신 장군이였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다.”(24쪽)라고 했고, 자료편(<강릉단오제 천년사>)에서는 이 글을 두고 “강릉출신 교산 허균이 임진왜란을 겪고 난 후 고향 강릉에 어머니와 함께 오면서 본 강릉단오제에 대한 글이다. 이 글을 통해 당시에는 대관령산신인 김유신 장군을 봉안하는 축제가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400년 전 단오제 행사는 주신격만 산신에서 성황신으로 바뀌었을 뿐 절차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단오’라는 말이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조선조 최고의 기억력과 박학으로 유명한 허균이 이때의 산신제가 단오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 리가 없다. 글의 문맥과 글에 담긴 내용으로 볼 때, 허균은 이 ‘산신제’와 ‘단오’를 별개의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허균이 남긴 단오 관련 시들이다.

허균은 단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를 두 편 남기고 있는데 하나는 <단양일(端陽日)>(<<성소부부고>> 권2, 시부 2, 진주고.)이란 제목이 붙은 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궁중의 절서(節序)에 대한 고사를 읊은 궁사(宮詞) (<<성소부부고>> 권2, 시부 2, 궁사)이다. <단양일>은 다음과 같다.

단양의 좋은 계절 이야말로 천중절(天中節)이라 / 端陽令節是天中
쭉앞에다 창포꽃을 임금에게 올린다고 / 艾蒲浦花薦紫宮
이역의 나그네는 정서조차 메마르니 / 客在異鄉權緒少
그럼 난간 동쪽에 그넷줄만 걸려 있네 / 秋千虛搭畫欄東

허균은 이 짧은 작품에서도 단오와 관련된 풍성한 자료들을 담아내고 있다. 단오를 이칭(異稱)인 ‘단양’ ‘천중절’로 부르고, 단오의 상징인 ‘쭉’ ‘창포’등을 등장시키고 있으며, 단오의 대표적인 놀이인 그네를 등장시켜 자신의 심사를 표현해내고 있다. 따라서 만약 허균이 단오와 같은 날에 진행된 산신제를 보며 기존의 단오와 관련된 풍속을 하나라도 접했더라면 이를 단오와 관련하여 해석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 다른 작품 <궁사>에서 단오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천중이라 함문 앞에 상첩이 붙었는데 / 天中祥帖閣門前
창포주(菖蒲酒) 잔에 가득 애호도 달려 있네 / 蒲酒盈觴艾虎懸
물래 어원을 향해 여반을 불러내어 / 偷向御園招女伴
푸른 괴수(槐樹) 그늘 속에 추전을 시험하네 / 綠槐陰裏試秋千

단오날 대내에서 채선을 내리는데 / 綵扇端陽內賜時
은대와 경악에서 은혜 가장 많이 입네 / 銀臺經幄最恩私
바람 머금은 그 부채 봉안에다 백동(白銅) 고리 / 含風鳳眼銅環簪
관가가 아니고선 가질 수 없는 거지 / 不是官家不得持

허균은 이 궁사를 쓰게 된 연유를 한 편의 산문으로 남기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허균은 벼슬에서 물러나 요양하고 있던 때에 늙어서 궁을 나온 76세의 한 궁녀를 만나 궁내의 절목(節目)과 각종 고사(故事)를 자세히 듣게 되어 이를 궁사로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궁중에서 단오날 행해지는 풍속이 자세하게 그려진 이 작품은 당대 궁중 및 사대부들의 풍속과 일반 민중들의 풍속은 격식과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추전을 시험하네” “관가가 아니고선 가질 수 없는 거지”라는 표현은 허균이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만약 허균이 김유신을 주신으로 모신 산신제를 보면서 이를 강릉 특유의 단오

축제로 인식했었다면 위의 <대령산신찬 병서>의 산문이나, 찬 부분에 언급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두 편의 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창포’, ‘그네(秋天)’에 관한 언급도 없고, 절기(節氣)로서의 단오를 표현하는 시어도 찾아볼 수 없다. 즉 허균은 이때의 풍속을 일관되게 ‘산신제’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사실은 훗날 이루어지는 산신제와 단오제의 결합, 산신제의 성황제로의 전환 등 강릉단오제의 발전 양상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3. 현대시에 나타난 단오

1) 현대시에 나타난 단오의 심상

현대시에서 단오를 노래한 시는 많지 않다. 이렇게 된 원인은 단오가 예전과 같은 명절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행해지는 지역 축제로 협소화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단오는 궁중과 민간까지 널리 공유된 민족적 명절이었다. 그러나 조선말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단오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했다. “농민의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날이오 그 박게는 지방별로 단오날이 잇슬뿐”(〈동아일보〉 1922년 9월 27일자)이라는 신문기사는 이를 잘 증명해준다.

1914년 함북 경성에서 태어난 시인 이용악은 시 <다리 위에서>에서 “단오도 설도 아닌 풀버레 우는 가을철/단 하루/아버지의 제사날만 일을 쉬고/어른처럼 곡을 했다”라고 노래 한 바 있다. 강릉 지역에서는 ‘북단남추’, 즉 북쪽 지방은 단오를 최고로 치고, 남쪽 지방에서는 추석을 최고로 친다는 말이 전해져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북단 경성 출신인 이용악의 시는 이를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시는 북쪽 함경도 지방에서 단오와 설을 최고로 쳐왔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1915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서정주는 단오와 관련된 시를 가장 많이 남긴 현대 시인이다. 서정주는 <보릿고개> <端午 노래> <楸韮詞 - 春香의 말 壹> <春香 遺文- 春香의 말 參> 등의 작품을 통해 단오를 노래했다. <보릿고개>와 <端午 노래>는 가난과 관련하여, ‘春香의 말’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세 편의 연작시는 단옷날을 배경으로 사랑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다. 아래 작품은 서정주 특유의 리듬과 어투가 잘 살아있는 작품이다.

사월 초파일 뻐꾸새 새로 울어
물든 청보리
깍인 水晶같이 마른 네 몸에

오슬한 비취의 그리메를 드리우더니

어느만큼 갔느냐, 굶주리어 간 아이.

오월 端午는

네 발바닥 빗갈로 보리는 익어

우리 가슴마다 그 까슬한 가시라기를 비비는데

뼈꼭새 소리도 고추장 다 되어

창자에 배는데......

문드러진 손톱 발톱 끝까지

얼얼히 배는데......

- 서정주, <보릿고개> 전문.

이 작품은 보릿고개라고 일컬어진 춘궁기를 시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사월 초파일에서 오월 단오 사이는 보릿고개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이다. 서정주는 자신의 고향 고창에서 많이 자라던 보리를 소재로 삼아 춘궁기의 고통을 시로 읊었다. 서정주에게 단오는 보리가 아이의 발바닥 빗갈로 익은 때, 춘궁기에서 해방되는 날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정주의 시들 중 널리 알려진 <楸韃詞 - 春香의 말 壹> <春香 遺文- 春香의 말 參>등의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쪽 출신의 시인들은 단오의 대표 놀이 중 하나이자 춘향전의 중요 모티프 중 하나인 ‘그네타기’에서 많은 시적 영감을 얻고 있다. 경남 함안 출신의 이수익도 이 단오와 춘향전의 모티프를 시적 소재로 삼아 아내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음 오월에도 초닷새 수릿날엔

아내여, 그대는 춘향이가 되라.

그러면 나는 먼 숲에 숨어들어 그대를 바라보는

이 도령이 되리라.

창포를 물에 풀어 머리를 감고

그대는 열일곱, 그 나이썹이 되어

버들가지엔 두 가닥 그넛줄을 매어

그대 그리움을 힘껏 뱉아 하늘로 오르면,

나도 오늘밤엔 그대에게

오래도록 긴 긴 편지를 쓰리라.

하늘로 솟구쳤다 초여름 서늘한 흰 구름만 보고
숨어 섰던 날 보지 못한 그대의 안타까움을
내가 아노라고.....
그대 잠든 꿈길 위에 부치리라.

- 이수의 <단오> 전문

단오의 그네타기와 춘향의 그네타기가 하나의 소재로 연결되는 것은 ‘설렘’ ‘만남’ ‘그리움’ 등의 정서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의 만남이 금기시되던 사회에서 단옷날은 이 금기가 잠시나마 해소되는 축제날이었다.

그네타기에서 ‘설렘’ ‘만남’ ‘그리움’ 등의 정서가 표출된 것은 고려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말의 문인인 도은 이숭인(1349~1392)의 시 <단오(端午)>는 이를 잘 보여준다.

오후의 지관에 오월의 바람 살랑살랑 / 五侯池館暑風微
현란한 그네뛰기 줄과 함께 공중으로 / 撩亂鞦韆綵索飛
비단 부채 비단 적삼 그래도 부끄러워 / 紈扇羅衫也羞澁
녹음 깊은 곳 부러 찾아 서성거린다고 / 綠陰深處故依依

이 작품은 그네뛰기에 담긴 설렘과 만남의 정서가 감각적으로 잘 표출되어 있다. 오후(五侯)는 권문세가를 이르는 말로, 예와 법도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그네뛰기의 행위와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심상이 ‘감춤’과 ‘드러냄’의 변주를 통해 형상화 되고 있다.

2) 강릉 출신 현대 시인들의 시에 표현된 강릉단오제

강릉 출신으로 시와 소설을 겸하고 있는 윤후명은 시와 소설을 통해 강릉단오제를 그려낸 특이한 작가이다. 그는 지난 2012년 펴낸 소설집 <<꽃의 말을 듣다>>(문학과지성사)에 강릉단오제를 소재로 삼은 단편 <강릉/너울>을 수록했는데, 이 소설 속에는 강릉단오제를 소재로 삼은 자작시 2편도 담겨있어 주목된다.

꽃다운 처자의 눈엔 선봉(仙峰)이 들고

하늘을 피나리봇짐에 진 선봉이 들고
빈 방도 많을 타관의 불빛
선봉을 낭군의 말씀으로 비추인다

(중략)

꽃보리 같은 정을 두고
봉 넘어 가신 낭군은
타관의 불빛에 수신(瘦身)을 누이리

- 윤후명, <高山歌 3> 부분.

삶을 이어가기에는 감자가 아리고
사랑을 나누기에는 물고기가 비리고
죽음을 이루기에는
산과 바다가 죽음보다 길쭉하여
그리운 사람들 모두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고 싶던 날이 있었다
뒷산 호랑이가 나무 되어 걸어내려와
처녀 데려다 살았다는 옛곳
옥수수 수염 같은 고향길
그렇긴만
삶과 죽음이 새삼 서로 몸을 바꿔
사랑을 더듬는 모습 속에
더욱 알 길 아득하여
어디인가 어디인가
어디인가 멀뚱거리기만 하였다

- 윤후명, <강릉 가는 길> 전문

앞의 시는 시인이 지난 1977년에 펴낸 시집 <<名弓>>(문학과지성사)에 수록되어 있고, 뒤의 시는 소설집이 출간된 해인 2012년에 펴낸 시집 <<쇠물닭의 책>>(서정시학)에 수록되어 있다. 윤후명은 무려 35년이라는 시간적 격차를 두고 발표한 이 두 시를 인용하며 소설을 끌어가고 있다. 이는 작가가 고향의 단오제에서 많은 문학적 영감을 받았음을 알게 해준다. 작가는 앞의 시를 소설 속에 수록한 다음, 아래와 같이 설명을 붙였다.

“이 도저한 언어, 동떨어진 언어의 시는 대관령의 선녀를 위해 쓴 것이었다. 선녀는 ‘꽃다운 처자’로서 여성황이 되기도 하고 낭군은 ‘타관의 불빛에 수신을 누이’는 대성황

신이기도 하다. 이 모두 ‘하늘을 피나리붓짐에 진’ 대관령, 즉 ‘선봉’에서의 일이다. 그리하여 두 남녀의 만남이 단오제를 이끄는 줄기라는 게 내 생각이었다.”

뒤의 시 <강릉 가는 길>은 앞의 시의 소재가 된 대성황, 여성황 이야기를 녹여 삶과 죽음, 그리고 그리움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다. 작가에게 있어 고향 강릉은 설화와 신화가 살아있는 곳이자, 삶과 죽음에 관하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원형적인 공간이다. 이 원형 공간을 만들어주는 주요 모티프가 강릉단오제인 셈이다.

남대천과 가까운 관동대학교를 졸업한 박용재 시인은 강릉단오제를 남대천의 추억과 관련해 노래하고 있다.

내가 살던 남대천에 가면
안개가 허리를 낮추고
감자밭 속으로 지나가는 것을
내가 놀던 남대천에 가면
물풀들이 지체없이 바다로 흐르는 것을
내가 죽던 남대천에 가면
무심코 별을 헤던 청년 하나가
울며 지나는 저녁을 만난다.
단오날이면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의 찌죄죄한 가난이
자갈밭에 모여 서로 숨을 나누는 것을
내가 울던 남대천에 가면 만난다.

- 박용재, <남대천(南大川)에 가면> 부분

이 작품에서 남대천은 “살던” “놀던” “죽던” “울던” 등의 시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인과 한 몸이 되었던 공간이다. 시인이 이곳에서 만난 강릉단오제는 “전국에서 몰려온/사람들의 찌죄죄한 가난이/ 자갈밭에 모여 서로 숨을 나누는” 민초들의 축제이다. 시인은 이 민초들과 자신의 모습을 동일시하면서 남대천을 버림받은 자들, 방황하는 자들의 적소로 승화하고 있다.

박용재 시인이 남대천을 청춘의 방황에다 초점을 맞추어 노래하고 있다면, 이홍섭 시인은 남대천을 서커스단의 서러운 표정이 흐르던 곳으로 노래하고 있다.

전국 제일이라는
오월 닷새 강릉단오 며칠 앞두고
미리 모여든 서커스단 난쟁이 광대들

그 너른 남대천변에서
자기보다 큰 공을 굴리며 노래하고, 춤추곤 했는데
그 가락이며, 춤사위며, 분 없는 얼굴은
사람 많은 단옷날에는 볼 수 없는 것이라

그 가락이며, 춤사위며, 서러운 표정은
저물녘 강물처럼
가슴속으로 참 많지도 지나가곤 했는데

늦은 밤, 나보다 큰 것만 같은 울음 앞에서
제 곡조를 찾지 못할 때
그 서러운 표정이 어느덧 노래가 되고, 춤이 될 줄이야
되어서 저물녘 강물처럼 반짝이며 흐를 줄이야
- 이홍섭, <노래의 얼굴> 전문

시인은 본격적인 단오를 앞두고 미리 남대천을 찾아와 연습을 하던 서커스단의
맨얼굴에서 삶의 본얼굴을 읽어내고, 이것이 분을 지워버린 진정한 노래의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다. 심은섭 시인은 남대천을 마치 성장소설의 한 무대처럼 노래하고 있다.

누이와 나는
강뚝에 앉아 난장을 바라다보는 것이 좋았다
그네뛰기, 씨름
창포머리 감기, 관노가면극
옛장수 가위질은 기타소리보다 더 아름다웠다

누이와 나는
들고양이처럼 난장을 바라다보는 것이 좋았다
말을 잃어버리고
넋을 잃어버리고
난장을 바라다보는 것이 한 없이 기쁜 일이었다

누이와 내가
연어 떼가 돌아오지 않는 남대천 강변을 거닐며
말을 잃어버렸을 때
넋을 잃어버렸을 때

누이의 머리카락 속에 꼭꼭 숨는 단오를 보았다

누이와 나는

매양 수양버드나무 아래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무녀의 눈빛을 읽으며

신목의 떨림을 들으며

유년이 잘려나가는 눈이 큰 들고양이가 되었다

- <단오별곡> 전문

누이와 함께 단오제의 난장을 바라보며 아름다움과 기쁨을 만끽했던 화자는 어느덧 “유년이 잘려나가는 눈이 큰 들고양이가 되었다”라고 노래한다. 그네뛰기, 씨름, 창포머리 감기, 관노가면극, 엿장수 가위질 등이 유년의 평화로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상실감 뒤에 만나는 무녀의 눈빛, 신목의 떨림은 미래에의 불안과 야성(野性)을 상징한다. 심은섭의 이 시는 강릉단오제의 난장이 내면화되어 일종의 ‘성장시’로 형상화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시로서의 단오의 내면화는 박용재, 이홍섭의 시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강릉 출신의 시인들에게 강릉단오제는 ‘성장 제의(祭儀)’로서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4. 나오는 말

단오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명절로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단오의 위상은 급격하게 추락하였고, 마을축제로서의 단오제 역시 몇몇 지역에 국한되어 전승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강릉단오제는 끈질기게 명맥을 유지하고, 독자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이 글은 원래 시 속에 형상화된 단오의 모습을 통해 단오에 반영된 시인들의 세계관과 단오의 역사, 그리고 강릉단오제의 시적 형상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기획되었다. 그러나 단오가 주요 명절 중 하나였던 조선시대까지는 단오와 관련된 시가 많이 창작되었던 데 반해 단오의 위상이 낮아진 근대 이후에는 텍스트가 될 만한 작품들이 많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강릉단오제만을 시적 소재로 삼은 작품은 극히 희소해 비교 분석 자체가 어려웠다. 따라서 개별 작품들을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강릉단오제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마친다.

강릉단오제 관련 설화와 한국 현대 소설

— 모티프의 수용과 변용 양상을 중심으로

김정남(소설가·문학평론가)*

1. 강릉단오제 관련 설화
2. 강릉단오제와 고향의식—윤후명의 「모래부리의 새」
3. 강릉단오제 설화와 메타픽션—이광식의 「범일국사」
4. 강릉단오제 설화 모티프의 수용과 변주—김도연의 『아혼아홉』
5. 설화와 축제의 상관성

1. 강릉단오제 관련 설화

모든 제의(祭儀)는 신학·종교학·민속학에서 어떤 공동 사회로부터 실천된 신적인 것에 대한 숭배 형식으로 이해된다.¹⁾ 종교적인 제의의 의식은 그 참가자나 공동체가 신적인 것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예술(무용·노래·연극)을 이용²⁾했고, 예술을 자율적인 제도로 정립하기 앞서, 제의를 통한 예술의 시간과 공간 및 기능은 사회적 삶 속에 할당되어 있다.³⁾ 강릉단오제는 여느 축제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적 요소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일상적인 위계질서와 규범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카니발⁴⁾의 성격을 지닌 여러 놀이와 공연이 더해지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상인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대규모 난장까지 결합되면서, 단순한

* 김정남_1970년 서울 출생, 한양대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졸업, 2002년 『현대문학』에 평론이, 2007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소설이 각각 당선되어 등단. 문학평론집 『폐허, 이후』·『꿈꾸는 토르소』·『그대라는 이름』, 소설집 『숨결』(제1회 김용익 소설문학상 수상작)·『잘 가라, 미소』(2012년 4분기 우수문학도서), 장편소설 『여행의 기술—Hommage to Route7』 등. 가톨릭관동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

1) 볼프하르트 헥만·콜라드 로터, 김진수 옮김, 『미학사전』, 도서출판 예경, 1998, 313쪽.

2) 위의 책, 313쪽.

3) 위의 책, 313-314쪽.

4) 유인경, 「동해안 별신굿 거리굿의 축제극적 성격」, 『한국 문학사의 전개과정과 문학담당춤』, 국학자료원, 2002, 393쪽.

세시민속 행사 이상의 지역 축제로 발전해 왔다.

대관령 국사성황을 중심으로 하는 강릉단오제의 제의적 성격을 밝혀주는 역사적 증거들은 여러 문헌들을 통해 각종 기록과 설화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우선, 허균의 시문집인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는 ‘대령산신찬병서(大嶺山神贊並序)’가 있는데, 거기에 그가 어느 여름 강릉에 가서 단오제를 구경한 기록을 전한다. 이속(吏屬)의 말에 따르면 그 신은 신라 장군 김유신이라 하였는데, 지금까지 남다른 영험이 있어 명주 사람들이 매년 5월초 길일에 제사를 지낸다고 허균은 적고 있다.⁵⁾

1933년에 발간된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에는 강릉단오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을 전하고 있다.

“매년 4월 보름에 강릉부에서 임명된 戶長이 남자와 여자무당을 인솔하고 대관령 정상에 있는 신령을 모신 사당으로 가서 호장이 먼저 사당 앞에 나가 告由하고, 남자와 여자무당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나무 가운데서 신이 내린 나무를 찾아 모시고 오라 시키면 갑자기 나무 하나가 미친 바람이 불고 지나간 듯이 나뭇잎이 저절로 흔들리면 마침내 신령이 그 나무에 내린 것으로 알고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 긴장한 장정으로 하여금 받들게 하고 이를 國師라 하였다.

(중략)

신목을 모시고 대관령을 내려와 강릉 시내 성황사에 안치해 둔다. 5월 5일 무당과 광대들이 화개를 앞세우고 잡희를 하면서 놀다가 해산하고, 이튿날 성황사에서 신목을 태웠다. 이 행사는 매우 오랜 풍속이고 이를 하지 않으면 비바람이 곡식에 피해를 주고 금수의 피해가 있다고 믿었다.⁶⁾

이 기록에서는 허균이 『성소부부고』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관령 산신이 없는 대신, 접신한 나무를 국사(國師)로 칭하고 이를 성황사에 모셨다는 것과 이러한 제의의 주관 계층이 호장으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점⁷⁾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의의 목적이 지역민들의 풍년에 대한 기원과 금수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어, 강릉단오제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키바는 강릉단오제를 관행(官行)의 읍락제(邑落祭)⁸⁾, 이규대는 읍치성황제⁹⁾라 지칭했다.

이상의 언급으로도 강릉단오제의 주신(主神)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현재 범일국사(梵日國師/泛日國師)를 국사성황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한 기록은 무라야마 지준(村山智

5) 편집부, 『한국의 전통예술』,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293쪽.

6) 『完譯 增修臨瀛誌』, 강릉문화원, 1997, 98-99쪽.

7) 황루시, 「강릉단오제 설화연구」, 『구비문학연구』 14호, 한국구비문학학회, 2002, 454쪽.

8) 아키바 다카시, 심우성 역, 『朝鮮民俗誌』, 동문선, 1993, 193쪽.

9) 이규대, 「강릉국사성황제와 향촌사회의 변화」, 『역사민속학』 7집, 한국역사민속학회, 1998, 109쪽.

順)이 1936년 조선의 사상에 관한 조사의 일환으로 230곳을 답사하여 집필한 조사보고서 「부락제」인데, 이 책은 1937년 『조선의 향토신사』(朝鮮の郷土神祀) 중 제1부로 발간¹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사성황의 분명한 의미와 강릉단오제 주신으로의 좌정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¹¹⁾ 신라의 왕으로부터 국사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국사라는 명칭이 곧 범일을 지칭한다고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높은 산정에 위치한 천신의 하강처를 국사당이라 지칭하였고, 『증수임영지』의 기록에서처럼 산정에서 접신한 나무를 국사라 부른 것과 관련시켜볼 때, 그 인격신을 바로 범일이라는 천신계 신화의 주인공¹²⁾에서 찾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따름이다.

여기서 대관령 국사성황신으로 좌정한 범일국사의 생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신비한 출생담과 업적에 대한 기록은 중국 당나라 때(952년경)에 찬술한 선가의 기록인 『조당집』(祖堂集)에서 시작하여 여러 전승 자료들과 설화집 자료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³⁾

신라 때 강릉지역 학산(굴산)의 양가집에 한 딸이 있었다. 그녀가 아침 일찍 石泉의 우물을 뜨려고 하는데 물 속에 둥그런 태양이 떠 있는 것이 아닌가. 처녀는 아직 해가 뜰 때도 아닌데 웬일일까 이상하게 여기며 바가지로 물을 떴다. 그러자 해가 다시 바가지 속으로 들어와 있었다. 처녀는 목이 마르던 차라 그 물을 마셨는데 그때로부터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다. 여자의 집에서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으니 큰일이었다. 그래서 부모가 딸을 가두고 아기를 뒷산의 학바위굴에 버렸다. 아기 엄마가 집에서 도망하여 굴에 이르니 여러 짐승들이 아기를 보호하고 뱃배지가 젖을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집안에서는 아기가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고 데려와 길렀다. 그리고 해가 담긴 물을 바가지로 떴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름을 泛日이라고 하였다.

아기가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없음으로 놀림을 받자 서라벌(경주)로 보내어 공부를 시켰다. 그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스님이 되었으니 곧 범일국사이고, 강릉 사람들이 스님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숭배하게 되었다.¹⁴⁾

설화에서 범일의 탄생담은 붉은 해가 상징하는 태양신적 의미¹⁵⁾와 석천에서 아기를 잉태했다는 수신계 신앙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전형적인 천부수모(天父水母)형 이야기

10) 한국민속신앙사전(<http://folkency.nfm.go.kr/minsok>)

11) 황루시, 앞의 책, 463쪽.

12) 위의 책, 464쪽.

13) 본 연구는 설화의 전승과정과 신화적 윤색 그리고 그 변모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내려 오는 설화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14) 「학바위와 범일국사」, 『태백의 설화』(上), 강원일보사, 1974.

15) 뜬 해를 마시고 잉태했다는 의미에서 범일(梵日)은 범일(泛日)로 쓰이기도 한다.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일국사의 탄생담이 얹힌 학바위에서 ‘학산’이라는 지명이 유래했고 석천(石泉)이라는 우물 역시 신화의 진실성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신이 한 출생담에서부터 그가 나중에 불도를 크게 일으켰다는 측면에서 그는 강릉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만한 역사적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대관령 국사성황의 자리에 좌정하게 되었는지는 그 구체적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규대는 강릉단오제 주신 교체에 대한 유력한 근거를 강릉지방 존불성향의 결사체인 미타계(彌陀契)의 결성¹⁶⁾에서 찾고 있다. 미타계는 나말여초에 결성되었다가 숙종 7년(1681)에 중수된 것이다. 송유억불을 표방했던 조선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미타계를 주도한 향리들이 범일을 국사성황의 자리에 올리고 사회적 해계모니를 강화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관령국사성황과 연관되는 설화가 국사여성황이다. 호환(虎患)에 죽은 여인이 국사여성황으로 자리하는 것은 호신앙과 무속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옛날 강릉에 정씨네가 살고 있었는데 이 집에는 나이가 찬 딸이 있었다. 어느 날 밤 정씨의 꿈에 대관령서낭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이 집으로 장가를 오겠노라고 청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서낭을 사위로 삼을 수는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딸이 노랑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입고 뒷마루에 앉아 있을 때 홀연히 호랑이가 나타나 엮고 달아났다. 호랑이는 산신이 보낸 사자로서 그 처녀를 모셔오라는 분부를 받고 왔던 것이다. 국사서낭은 그 처녀를 데려다 아내로 삼았다.

한편 딸을 잃은 정씨네에서는 잡히는 데가 있어 대관령서낭당으로 찾아갔다. 그곳에는 처녀가 서낭 옆에 서 있는데, 벌써 죽어서 혼은 없고 몸만 비석처럼 서 있었다. 가족들이 화공을 불러 처녀의 화상을 그려 세웠더니 시신이 비로소 떨어졌다. 호랑이가 처녀를 물어간 날이 4월 15일이기 때문에 그날에 국사서낭을 모셔다가 두 신을 합배시키고 제사를 크게 지낸다.¹⁷⁾

대관령 국사여성황인 정씨 여인은 깊은 한을 품고 죽은 원혼이 집안의 범위를 넘어 지역의 신으로 좌정한 예¹⁸⁾의 하나다. 곧 전통적인 호신앙과 억울한 죽음이라는 한을 풀어주는 무속이 연결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정씨 아버지가 신탁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사성황은 호랑이를 보내 정씨 여인을 잡아간다.¹⁹⁾ 그로 인한 죽음이 원통하였기에 그녀의 시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에 화상을 그려 세웠더니 그녀의 시신이 떨어졌고, 이제 그녀는 국사성황의 부인이 된다. 4월 15일에 국사성황을 모시는 영신제를

16) 이규대, 앞의 책, 480쪽.

17) 최승순, 「동계축문 내용고」, 『월산임동권박사송수기념논문집』, 집문당, 1986, 258-259쪽.

18) 황루시, 앞의 책, 475쪽.

19) 이러한 설화의 내용을 전통적인 호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호랑이는 국사성황의 사자로 복속되어 2차적인 신앙의 대상이 된다.(위의 책, 478쪽)

하고 이를 여성황과 합배하는 의례를 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대관령에 있는 국사성황과 민가에 있는 여성황이 서로 연결되는데, 이는 선계와 속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고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강릉단오제는 대관령 국사성황으로 좌정한 범일국사, 국사성황과 사후 혼배하여 여성황으로 추앙된 정씨 여인, 대관령 산신인 김유신, 육성황(肉城隍)인 창해역사²⁰⁾, 소성황(素城隍)인 김시습이 그 제의의 대상이 된다.

2. 강릉단오제와 고향의식－윤후명의 「모래부리의 새」

작가 윤후명은 1946년 강릉에서 태어나 당시 육군법무관이었던 부친의 전근으로 인해 1953년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따라서 작가에게 고향 강릉은 유년기의 체험 속에 단편적인 기억으로 자리할 뿐이다.

머리 속에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기억 가운데 그래도 선명한 편이거나 몇 장면씩 연결되는 것은 6·25의 소용돌이 속에서 재빨리 피난을 못 가고 겪었던 일들과 이웃집 소꿉친구 소녀와의 일들과, 집안에 알게 모르게 맴돌고 있던 불행한 가정사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다. 이 부분의 개인 기록은 아직도 모호하기만 한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²¹⁾

그러나 이것은 원체험으로서 작가의 상상력에 결코 작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원체험이라는 용어 속에는 유년체험이 한 작가에게 감수성의 향배와 세계관 형성의 근본적인 질료로 작용한다는 의미가 내장되어 있다. 한국 현대문학에서 작가의 유년 체험의 의미 중 하나는 낭만적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과 포근함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과 빈궁으로 인한 고통과 낭만세계의 훼손²²⁾을 포괄한다. 윤후명의 유년체험에도 바로 ‘소꿉친구 소녀와의 일들’로 상징되는 낭만적 기억과 ‘6·25의 소용돌이’와 ‘불행한

20) 창해역사에 대하여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자료는 홍만종의 『순오지』에서 찾을 수 있다. 예국의 노파가 시냇가에서 호박만한 알이 떠내려 오는 것을 주워 두었더니, 얼마 안 되어 알이 두 쪽 나며 남자아이가 나왔다. 그 아이 얼굴이 보통사람이 아니었으며, 6세가 되자 키가 8척이나 되고 얼굴빛이 검어서 성인과 같았으므로 검을 ‘여(黎)’자를 성으로 삼고 이름은 용사(勇士)라 불렀다. 여용사가 예국의 호랑이를 퇴치하기도 하고, 만근이나 되는 종을 옮기는 등 괴력을 발휘하자 왕은 상객으로 대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죽은 곳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장정룡, 강릉디지털문화대전 <http://gangneung.grandculture.net>) ‘최독구본 창해역사 이야기’(김선평, 『한국구비문학대계』, 강원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12-214쪽)에는 그가 중국으로 건너가 진시황을 죽이려 했으나 수레를 잘못 알고 공격하다가 실패하여 방랑사 모래 밑에 굴을 뚫고 도망갔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강릉지역에 전하는 구전설화에는 창해역사의 이름을 강중(剛中)이라 밝히고 있으며, 사후에 강릉의 성황신 가운데 육고기를 대접받는 장군신인 육성황신이 되었다고 한다.(장정룡, 앞의 글)

21) 윤후명, 「나」를 찾아 헤매 온 길, 『하얀 배』-1995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1995, 427쪽.

22) 이남호, 『녹색을 위한 문학』, 민음사, 1998, 237쪽.

가정사'로 대표되는 낭만세계의 파괴가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유년체험의 증핵적인 배경은 “산과 바다와 선녀와 축제”²³⁾라고 그는 회상한다.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축제란 바로 강릉단오제를 지칭한다.

나라 안팎의 민속학자들이 “이런 축제가 지구상에 있었느냐”고 감탄하는 강릉 단오제는 어릴 적 기억에 의존해서도 굉장한 것이었다. 길거리에 넘치는 구경꾼들과 장사아치들. 그 독특한 눈매에 한스럽다고까지 할 정감을 댄 처녀들과 아낙네들의 그네 타기. 옛장수의 옛목판에서 떼어져 나오는 옛, 줄콩꽃같이 붉은, 선정적인 몸놀림. 그래서 지금도 해마다 단오제가 되면 영동 지방 사람들은 물론 소문을 아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몰려들어, 택시 안에서 잠을 자야 하는 사태에 이른다. 그 축제가 또한 내 뒤통수에 있는 것이다.

강릉 단오제는 간단히 생각하면 단옷날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지만, 그 준비 과정과 규모는 실로 대단하다.

음력 3월 20일에 제사 지낼 술을 빚고 4월 1일에 그 술과 시주를 올리고 무당들의 굿이 있다. 4월 8일에는 대성황 신당에서 또다시 굿을 올리고 4월 14일에는 성황신을 모시고 대관령을 내려온다. 도중에 송정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성황사에 도착하여 성황당과 산신당에 각각 제사를 지낸다. 성황당 근처에서 무당이 굿을 하여 흔들리는 나무를 신이 내렸다고 베어낸다. 그 나무를 들고 강릉으로 내려와 여성황사에 모셨다가 다음날 대성황사에 모신다.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관리들과 무당들이 문안을 드리는데, 4월 27일에는 큰굿을 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오제를 벌인다. 굿과 가면 놀이가 당집 앞에서 벌어진다. 그리하여 단옷날인 5월 5일에는 축제가 절정을 이룬다.²⁴⁾

(강조-인용자)

윤후명이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강릉단오제의 준비과정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그에 이 축제에 대한 기억은 “경포 호수며 오죽헌이며 선교장”과 같은 볼거리나 이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나 강설량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작가의 의식 심층에 자리 잡은 원체험에 해당한다. 아마도 그는 당시, 축제라는 이름의 환상과 풍요, 전쟁이 가져다 준 피폐와 곤궁 그 사이에서 자신의 문학적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는지 모른다. 작가에게 기억이란 작품 생산의 질료에 해당한다. 그에게 고향 강릉, 그리고 단오제는 작품 속에 어떻게 투영되었을까.

「모래부리의 새」에서 서술자인 ‘나’는 작가의 자격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강릉으로 문학여행을 오게 된다. 그러나 서술자에게 고향 강릉은 “엄연한 고향인데 고향답게 밟지 못”한 곳이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으나 전쟁이 끝나지 않아 아직 학교가 문을 열지 못했고, 그 이듬해 고향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곳이 고향임을 내세워 나는 잡

23) 윤후명, 앞의 책, 426쪽.

24) 위의 책, 426쪽.

지며 사보에 오월 단오제(端午祭) 행사를 스케치하기도 했고, 도시 자체를 소개하기도 했”기에 누구보다도 고향을 “잘 우려먹고 있는 셈”이었다.

그뿐이라.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고려시대의 객사문이라든가 신사임당이 이울곡을 낳은 오죽헌, 조선시대의 격조 높은 저택으로 손꼽히는 선교장 등 건축물에서부터 대관령의 산신(山神), 강문의 솟대 위에 앉은 나무새, 남대천으로 회귀하는 은어, 초당의 두부 등등을 주 위섬기기로는 향토 문화에 온 세월을 바친 사람 못지않게 이골이 나 있는 것이었다.²⁵⁾

그러나 고향이라는 말은 절절하게 서술자의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어쩐지 고향에 대한 모든 것은 “뜰구름 속에서 일” 같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여기서 고향은 기억 속의 미궁 같은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의 뇌리 속에는 유년기의 강렬한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 이때 이미지는 구체성은 없는 것일지라도 삶의 기본 정서를 형성하는 원체험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테면 하얀 길이 있다. 어릴 적 우리 집 앞에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그 길처럼 하얀, 눈부시게 하얀 그런 길을 나는 언제, 어디서나 다시 본 적이 없다. 이 경우 어지간히 환하게 뿜어져서 짹짹 피약별을 받고 있던 그 길이 꿈속에 한층 희게 바래져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다. 바다로 가는 그 길은 하얗게, 하얗게 뻗어 있었다. 뒷날 어른이 된 나는 삶의 기본 정서를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풀이하는 간단한 도식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릴 적 그 하얀 길을 바라보며 이미 마음속에 키운 것이었음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²⁶⁾

유년의 기억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하얀 길’의 이미지는 “외로움과 그리움의 촉매(觸媒)”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어릴 적 하얀 길을 바라보며 키운 것이었다. 그 길은 “동네 코흘리개와 어울려 죽은 병아리를 묻으러 멀리까지 갔던 길”이었고, “이웃집 소녀 세화와 손을 맞잡고 소꿉장난을 다니던 길”이었으며 “큰 아이들의 뒤를 좇아 호수와 바다로 향하던 길”이었고, “어느 날 밤 총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쏟아지던 길”이었고, “안경을 쓴 새아버지라는 사람이 지프를 타고 나타난 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길은 단오에 “대관령 산신이 나무로 변해 내려”오는 길이었다.

서술자는 고향에 내려온 문학여행 길에 참여한 한 여인과 술잔을 기울이게 된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서, 언젠가 유등제에서 만나 서로 사랑한다고 속삭인 사이이지만, 이제

25) 윤후명, 「모래부리의 새」—바다의 전설3,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98. 1, 144쪽.

26) 위의 책, 145쪽.

는 이승 사람이 아닌 그녀를 겹쳐 연상하게 된다. 이런 혼란 속에서 서술자는 나무새, 강문의 솃대 ‘진또배기’를 떠올린다.

「말 그대로 나무로 만든 새지요. 그 새에게 신탁(神託)이라도 받았으면 하구요.」

나는 여자가 내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있었다. 나로서도 엉뚱한 소리가 아닐 수 없었다. 도대체 나무새는 뭐며 또 게다가 신탁이란 뭐 말라죽을 신탁이란 말인가. 내가 단오제의 본고장에 와서 그 제의의 중심이 되는 곳이라도 머리에 떠올리고 있던 말인가. 대관령 산신이 나무새를 통해 내게 내릴 말씀이 무엇이란 말인가. 어처구니없는 짓거리였다.²⁷⁾

여기서 대관령 산신이 나무새를 통하여 내린 신탁은 이렇게 서술자에게 다가온다. 강문의 진또배기를 보러 가기 위에 마차에 올라탄 ‘나’는 옆 자리의 여자의 얼굴에서 이제 세상에 없는 어릴 적 소꿉친구 세화와 유등제에서 만난 그녀의 얼굴이 서로 닮아있음을 떠올린다. 고향의 기억은 시공을 초월하여 그리운 것들을 서로 만나게 하고 신기루 같은 기억들을 서로 조합하게 하는 마력을 지닌 것이다.

나무새가 있는 마을에 다다르자 “이제야 정말 고향을 찾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서술자의 마음속에서 솃구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서술자는 고향의 ‘신기루’와 ‘실체’ 사이에서 번민한다. 신기루란, 한국전쟁 당시 교전 중에 전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부친의 죽음이 기실 동료의 총기 오발 사고에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된 “잘못 알고 여태껏 키워온 생각”이라면, 실체란 아버지의 무덤과 같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고향에서 “확실한 근거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이 신기루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오발 사고를 낸 당사자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그를 만난다 해도 무슨 대화를 나눌 것인가 하는 막막함에 사로잡히고 만다.

결국 서술자는 “신기루를 걷어버리고 실체에 다가가야 한다는 조바심과, 신기루로 남겨두고 바라보아도 좋다는 여유 사이에서 나는 유예된 생명”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이제 마차는 모래부리가 길쭉이 뻗어나간 길 위를 달리고 있다. 여기서 ‘나’는 다시 유년의 ‘하얀 길’ 위에 서 있다. 그 길 끝에는 고향의 실체로서의 “아버지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다. 화자는 모래부리의 나무새들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마차가 달리는 앞으로 하얀 길을 내주고 있는 판타지를 목격하고서, 강문 진또배기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왔어요. 여깁니다.”라고 말한다. 길이 끝나는 곳에 자리잡고 있는 ‘아버지의 무덤’이라는 실체에 다가가는 것만이 고향을 이해하는 길이 아님을 부지불식간에 깨달은 것이다.

이제 서술자는 “뜬구름 속에서의 일”처럼 여겨지는 고향이라는 이름의 ‘기억의 압박’에서 벗어나, 고향이 주는 현실과 몽상의 양가감정(ambivalence)을 마침내 긍정하게 된

27) 위의 책, 150쪽.

다. 이는 결여되어 있는 고향의 실체감으로 인해 감내해야만 했던 외로움과 그 결락을 메우기 위해 몽상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했던 그리움의 시간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몽상이 깨어지고 나면 현실은 냉혹하다. 반대로 현실의 냉혹함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몽상에 기대게 된다. 제의라는 축제의 신화적 비의를 ‘실재하는 비현실’에서 찾을 때, 현실과 몽상은 피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진 생의 순환 고리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곧 “대관령 산신이 나무새를 통해 내게 내릴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신탁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강릉단오제 관련 설화와 메타픽션—이광식의 「범일국사」

작가 이광식은 역사적 실존인물인 범일국사의 탄생담과 그가 입적하기까지의 일대기, 더 나아가 그가 대관령 국사성황으로 좌정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유려한 필치의 역사소설로 그려내고 있다. 천 년 전으로 돌아간 이야기는 우선 범일국사의 탄생담에서 시작된다.

표주박으로 떠서 그 물을 한 모금 시원히 마셨더니, 전신에 짜릿한 쾌감이 퍼져 나갔다. 그때였다. 청솔가지 사이로 커다란 해가 떠오르지 않는가. 그 해는 크고 붉게 타오르고 있었으나 뜨겁지 않았고 먼 곳에 있지도 않았다. 바로 머리 위에서 불타고 있었다. 마치 큰 계란의 노른자 모양 둘레가 붉고 노랗게 이글거리고 있었다. (중략) 둥글게 타고 오른 해가 갑자기 文 처녀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文 처녀는 일어나면서 영겁결에 해를 안았다. 그건 그러려한 것이 아니라 해가 그녀의 가슴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었다. 文 처녀는 그 해를 한아름 안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해는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해를 받들고 있는 자신의 몸이 뜨겁게 달아 오르는 것을 느꼈다. 부정(不淨)스럽게도 하초(下焦)가 따뜻했다.²⁸⁾

이것이 수태와 관련된 文 처녀의 상징적 현몽이다. 그녀는 이 꿈을 떠올리며 물동이를 이고 샘터를 향하게 된다. 정월의 찬바람이 감싸고 있는 샘터에서 그녀는 “물 속에서 방금 꿈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해가 뚱뚱 떠있는 것”을 목격하고 바가지로 그만 놓치고 만다. 순간 꿈속에서처럼 아랫도리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기색(氣塞)이 되어갔던 것이다.

그것이 해인지 해 아닌 다른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도, 지금 사람들, 특히 문예에 관심이 많은 식자들과 마을의 유지들은 그 해가 단순한 해가 아닌 것이란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알레고리로서의 해일뿐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것은 남성이거나 남성 그 자체에 다른 아닌 것으로 규정짓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건데 그것은 성행위 그 자체의 메타포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견해이다.²⁹⁾

28) 이광식, 「범일국사」, 『사랑하는 아들에게』, 강릉오죽문학회, 1988, 100쪽.

여기서 독자는 허구적 사태에 대한 서술자의 개입, 즉 직접적 논평을 목도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설은 어디까지나 꾸민 이야기지 현실이 아니란 것을 작가가 얼굴을 내밀고 독자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³⁰⁾ 이것을 우리는 메타 픽션(metafiction)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는 소설의 현실 반영 기능에 대한 회의와 불신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도 이해해야만 한다. 메타 픽션은 소설이란 상상력에 의해 구축된 허구임을 솔직히 드러내는 소설인 것이다. 서술자는 文여인의 꿈 속에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나의 성행위의 알레고리로 이해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신화를 역사화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文처녀와 성희를 나눈 남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차례다. 그는 학산마을 서쪽에 건립하는 사찰의 총감독으로 임명된 명주도독(溟洲都督) 김술원(金述元)의 아들 김 총각이었다. 서술자는 文처녀와 김 총각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김총각은 학바위 바로 아래에 있는 석천에 누군가 물을 뜨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것은 차라리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같이 보이기도 했고, 아마도 현화가란 노래와 인연이 깊은 수로 부인이 살아 있다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드는 신비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였다. (중략)

김총각은 서둘러 학바위계로 나갔다. 다른 때 보다 훨씬 늦은 시각에 나타난 그녀가 햇빛에 반사된 샘물 위의 빛살에 눈이 부셔할 때 바람보다도 빠르게 그녀를 안고 소나무 숲 속으로 들었다. (중략)

세월이 물처럼 간단없이 흘러갔다. 문처녀가 세상 밖에 나오지 않은 지 열세 삭(朔)만에 아기가 태어났다.(일설에는 열네 달이라고도 한다.) 옥동자였다. 때는 신라 헌덕왕(憲德王) 3년 서력 810년 춘 정월이었다.³¹⁾

모든 영웅의 탄생담에는 시련이 있는 법이다. 그는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버림을 받게 되고, 선학들이 깃으로 아이를 덮고 단실(丹實)을 먹여 보호했다. 이를 비범한 일로 받아들인 문중 사람들은 아이를 키웠고, 굴산사가 거의 완공되어 갈 무렵, 그는 어머니에게 출가를 선언하고 새별(경주)로 가게 된다. 이어 20세가 되자 구족계(具足戒)를 받았고, 그 법위는 범일로 지어졌다. 흥덕왕 때 그는 왕자인 김의종과 당나라 유학을 떠나 염관제안대사에게서 6년 동안 사사를 받았고, 문성왕 9년(서력 847년) 경주로 돌아왔다. 이상의 내용은 역사적 인물인 범일국사의 인생 역정에 대한 사실적 기록이다. 여기서부터 소설은 그가 어떻게 다시 고향인 강릉 학산의 굴산사 지주로 돌아오게 되는가에 대한 역사적 실체를 조명하는 데 바쳐진다.

29) 위의 책, 103쪽

30)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0, 225쪽.

31) 이광식, 앞의 책, 105쪽.

여기서 이야기를 잠시 뒤로 돌릴까 한다. 왜 그래야 하는고 하면 범일이 강릉도독 김공의 초청에 의해 자신의 출생지이자 외가인 학산에 갔을 때의 저간의 사정을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어느 계열의 사람이든 명주도독 김공의 적극적인 후원과 범일 자신의 종교적 소양에 기인하여 굴산사는 융성일로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공의 적극적 후원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것과 범일국사와는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질 수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본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과거로 잠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³²⁾

서술자는 이야기의 흐름을 중단하고 범일이 굴산사 주지로 고향에 돌아오게 된 역사적 맥락을 살피고자 하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논급은 역사적 사실을 재구하는 서사적 내용을 명백한 픽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픽션은 하나의 위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메타픽션은 그들의 담화를 우리 자신의 (진지하고 진실한) 담화로 끌어올리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³³⁾고 할 수 있다. 역사적 담론을 소설적 형식에 대입하여 그 논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기엔 신라의 왕위 쟁탈전을 둘러싼 교종과 선종의 세력대결이 가로놓여 있다.

김주원이 명주군왕으로 봉해져서 명주로 가는 길, 우울함과 암담함이 노정의 도처에 어려 있었다. 그러나 주원에게 식읍(食邑)으로 주어진 울진에 도착하면서부터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지던 것이었다. 근을어(近乙於: 평해), 삼척 그리고 명주에 도착하자 모여드는 백성의 환호소리와 명주도독의 정중한 예우는 주원으로 하여금 왕위 쟁탈에서 밀려난 번뇌를 다소 잊게 해주는 것이었다. 북으로는 익령(翼嶺: 양양)까지 자신의 부임을 환영해 주는 촌장들이 명주에 도착해 있었다.³⁴⁾

소설은 왕위쟁탈에서 밀려나 명주군왕으로 부임하는 김주원의 내면풍경과 그를 환대하는 백성들과 명주도독 그리고 각 지역의 촌장들의 모습을 세심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주원은 장차 중앙으로의 진출을 위해 여러 가지 모색을 해 나가면서 왕권 재도전을 위한 칼을 품고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술자는 “새별 중앙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교종의 도량 낙산사”의 화재사건을 중앙의 힘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보고, 김주원의 중앙진출 의도는 이러한 교종 세력의 축출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범일국사는 이러한 시세에 김공으로부터 초청된 것이었고”, “범일로 인해 그 지방에 있던 교종의 잔여 세력이 완전히 없어졌고, 선종이라는 새로운 법문이 흥분했음이

32) 위의 책, 109-110쪽.

33) 윌리스 마틴, 김문현 옮김, 『소설이론의 역사』 —로망스에서 메타픽션까지, 현대소설사, 1991, 261쪽.

34) 이광식, 앞의 책, 115쪽.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굴산사를 중심으로 한 선종은 이른바 굴산사파를 형성하고, 현강왕 2년(서력 858년)에 낙산사가 중창되고, 삼척의 삼화가가 개창되면서 결국 영동지역은 이 세 개의 절을 중심으로 선종의 사상적 기반이 보다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 것이다.

소설은 범일국사의 입적과 대관령 국사성황신으로의 좌정 그리고 정씨 처녀가 국사여성황으로 모셔지는 이야기까지 나아간다. 서술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살아 굴산사에서 중생의 정신적 지주로 있어야 했지만, 죽어 이 지방을 내려다보고 있는 대관령에 가서 산신령이 되어 살아야 했다. 사람들은 범일에게 그렇게 해주길 원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주길 원했으므로 죽어 육체는 다비했지만 영혼으로 이승에 나온 범일은 어느 사이에 대관령 국사 성황님이 되어 있었다. (중략) 범일이 죽어 대관령에 살면서 더 인간적이고 더 따뜻해져갔다. 어렵고 고통스런 일반 백성과 더불어 산인 채로 인간인 채로 살아야 했다. 그들의 눈물과 한숨과 맥힘과 원한을 풀어주어야 했다. 범일은 속화되어 가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중략)

어느 날 범일은 드디어 자신을 살아있는 피끓는 인간의 모습으로 될 결심을 굳히고 산을 내려간 것이다.³⁵⁾

범일국사는 대관령 국사성황신으로 좌정한 후, 이곳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을 함께 나누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한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의 인간의 모습으로 화하여 속세에 내려온다. 그것이 바로 정현덕의 과년한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게 되는 사건과 이어지게 된다. 그녀의 영혼은 범일과 하나가 되고, 사람들은 정씨 처녀의 죽음을 기려 여성황에 앉히고, 이 두 부부의 혼배를 단오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황 신화를 통해 선계와 속계가 이어지고 그 가교를 통해 인간과 신이 만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범일국사의 생은 영웅적이었고, 그는 입적 후 신으로 좌정하게 되지만, 그 한계를 넘어 인간의 고뇌와 눈물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무한 시간 속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이 소설은 끝을 맺고 있다. 이 작품은 역사적 현장에 대한 파노라마적 묘사와 이에 대한 주석적 비평을 통한 메타픽션의 기법으로 범일국사의 삶과 이를 둘러싼 당대의 역사의 실체를 해부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35) 위의 글, 123-124쪽.

4. 강릉단오제 관련 설화 모티프의 수용과 변주

－김도연의 『아흔아홉』

이제 우리는 작가 김도연의 이끄는 대관령 아흔아홉 구비를 여행할 차례다. 오랫동안 대관령은 소통의 장벽임과 동시에 왕래의 통로 역할을 해왔다. 대관령 서쪽 사람들에게 영동 지역은 폐쇄적이면서도 변방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러한 인문지리적 연원은 꽤 뿌리깊다. 가령, 이중환은 그의 저서 『택리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다만 서쪽에 영이 너무 높으므로 이역(異域)과 같아, 한 때 유람하기에는 좋지마는 오래 살 곳은 아니다.”³⁶⁾라고 쓰고 있다. 반대로 대관령 동쪽의 사람들은 늘 영 너머 세상에 대한 동경이 컸고, 그것은 서울로 상징되는 대치에서의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영동은 어느 지역보다 강한 향토애와 강렬한 장소애(topophilia)로 지역적 정체성이 매우 확고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작가 김도연은 서울의 위성도시에 살고 있는 Y와 대관령 동쪽 기슭에 살고 있는 그,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알아채고 집을 나간 아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대관령의 동과 서를 가로지는 팽팽한 길 위에서 서로의 삶을 긴장시키고 조율하려 했던 갈등과 그 아픔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차라리 그가 평생을 한자리에 서서 자라는 나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아내가 찾아오고 Y가 찾아오고…… 그렇게 두 사람이 번갈아 찾아와 그의 정강이를 걷어 차 주었으면 싶었다. 명이 시퍼렇게 들도록, 아내와 Y 사이를 몽유병자처럼 오가는 그의 노래를 자신도 설명할 길이 없었다.³⁷⁾

이러한 사이를 우리는 흔히 불륜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이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욕망과 금기, 행위 주체의 감정과 타자의 시선이라는 이중성을 감득하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적 요소로 인하여 이는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된다. 이 작품에서 대학 강사인 그는 Y와 아내 사이에 있다. 이렇게 걸어 들어간 사랑의 감옥에서 그는 차라리 나무가 되었으면 한다. 그것은 더 이상 몽유병자처럼 떠돌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Y는 구 영동고속도로와 대관령 옛길이 만나는 반정(半程)에 있다. 여기서 그가 서울 위성도시에 살고 있는 Y의 곁에 가 있지 않고, 그녀가 오히려 그에게 이끌려 대관령에 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인물 상호 간에 형성하고 있는 인력(引力)의 차원에서 보았

36) 이중환 저, 이익성 역, 『擇里志』, 을유문화사, 1971, 69쪽.

37) 김도연, 『아흔아홉』, 작가정신, 2012, 21쪽.

을 때, 그가 살고 있는 강원도의 자장(磁場)이 서울의 그것보다 크기 때문이다. 소설의 말미에서 그의 부인이 Y를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수도권으로 지칭되는 대도시에는 없는 강원도라는 공간이 지닌 순결성과 순정성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대관령(길)이 하나의 신령한 장소로서 소통과 화해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는 이 자리에서 Y의 가슴에 손을 넣으며 성희를 요구하는데, 이때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대관령 국사성황이 노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그는 말한다. “국사 성황은 단오 구경하러 강릉 갔어. 끝날 때까지 안 올라와.” 그렇다. 때는 바로 강릉 단오제 무렵이었던 것이다.

그는 한 달 전 아내를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성황당에서 국사성황제를 지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

성황당 뒤편 산기슭, 바람 한 점 없는데(아니 정말 바람이 불지 않았는지는 장담하지 못하겠다.) 파르르 가지를 떨던, 신목神木이 된 단풍나무를 향해 무너가 입을 열었다. “국사 서낭님, 사월 보름날 우리 서낭님 피시러 왔습니다. 홍제동에 기시는 정씨 국사 여성낭님한테로 놀러 가십시오. 단오 구경도 하시고.” 그때 그는 등에 얼음덩어리를 지고 있는 듯한 몸살에 덜덜 떨며, 사라진 지 네 달이 넘어가는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은 대체 어디로 놀러다니는 거야? Y도 그의 옆에 쫓그려 앉아 불을 쪼듯 유리 너머의 촛불을 향해 두 손바닥을 펼쳤다.³⁸⁾

대관령 국사성황제가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이 장면에서 그는 집을 나간 아내를 생각한다. “당신은 대체 어디로 놀러다니는 거야?”라며, 그러나 그는 그 순간, Y와 함께 있다. 아내에게 원망의 대상은 자기 자신일텐데, 그는 오히려 아내를 원망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 아내와 Y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의 고통을 오히려 아내에게 투사하는 것은 단순한 책임의 전가를 넘어서는 무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그와 Y는 닳새 동안 단오장을 함께 헤매고 다녀도 결국 그의 아내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여전히 드러낼 수 없어 감추어야만 하는 사이인 것이다. 그는 이불 가게에서 Y가 산 홀이불을 누가 불세라 자동차 뒷자리에 실어야만 했고, 그 이불 위에 아내가 털썩 내려앉는 상상까지 하게 된다. “그는 Y를 여전히 몰래 만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Y도 그러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게 된다. “당신 와이프가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는 바람에 날려가는 나뭇잎처럼 떠돌겠지……. 밤이 오면 돈을 주고 세상 침대를 빌리며.”

무녀들은 단오장에 모셔왔던 국사 성황을 환송하느라 바빴다. 단오제가 끝을 향해 치닫는다는 얘기였다. 오색 천을 매달아놓은 신목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아래에는 국사

38) 위의 책, 84쪽.

성황과 홍제동 여성황의 신위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국사 서낭님, 그동안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뭐 불편한 건 없으셨는지요? 내년에는 좀 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성황 부부가 이제 조금 있으면 헤어지는 거지?” Y가 화해를 시도하려는 듯 그의 팔을 툭툭 치며 말을 걸었다.

(중략)

왜 성황 부부가 단오제 때만 빼고 대관령과 강릉 홍제동에 각각 집을 두고 떨어져 살아야 하는 걸까. 말 그대로 별거 부부인 셈이었다. 지키고 보호해야 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성황 부부의 속사정이 궁금했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영정 옆에 있는 호랑이를 타고 자기들끼리 몰래 만날지도 모른다는 말은 Y에게 건네지 않았다. 어찌 보면 남편 성황은 산에 살고 아내 성황은 도시에서 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평소라면 주절거렸겠지만 역시 입을 다물었다.³⁹⁾

이 대목은 대관령 국사성황과 대관령 국사여성황의 신화 모티프가 소설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변용된 장면이다. 서술자는 성황 부부가 단오제 때만 만나는 이른바 “별거 부부”라고 했다. 이 작품에서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성황 부부는 그와 가출한 그의 아내의 처지를 대변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닷새 동안 단오제가 열리는 강릉에서 함께 사랑을 나눈 그와 Y를 은유하기도 한다. 이처럼 어느 한쪽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 중의적 요소는 우리에게 결국 ‘사이’라는 관계에 주목하도록 요구한다. 닷새 동안 단오장과 대관령을 쏘다녔지만 그들은 아무 답도 얻지 못하고, Y의 말처럼 “사라진 당신 와이프가 우리에게 주고 간 선물”같은 쓸쓸함만이 오롯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그와 Y와 아내의 관계는 어떻게 남게 되는가. 그들의 고통은 어떤 관계를 예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하여 그의 아내가 돌아왔다. “지지난 해 겨울 초입에 예고 없이 집을 떠나 꼬박 일 년을 소식 없이 지내다 다다음 해 이월의 끝자락에 역시 예고 없이 돌아온” 것이었다. 돌아온 아내는 나에게 이런 말을 털어 놓는다.

“나는 대관령에 새로 생긴 저 거대한 다리들이 싫었어.” 손전등의 기다란 빛기둥이 천천히 다리의 난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어나갔다.

“왜?” 싶이지 못한 화 때문에 그는 시린 손으로 눈을 뭉쳤다. 삼월의 눈에는 물기가 많았다.

“당신을 그년한테 훨씬 빨리 데려다준다고 생각했거든.” 고속도로의 서쪽 끝에서 살고 있는 Y도 잠을 못 이루고 있을 것 같았다.⁴⁰⁾

이제 대관령에는 대관령 옛길, 대관령 구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터널과 다리로 이루

39) 위의 책, 98-99쪽.

40) 위의 책, 137쪽.

어진 새로운 고속도로, 이렇게 세 갈래 길이 놓여 있다. 더 빨리 더 많이, 라는 효율은 근대의 이념임과 동시에 인간의 욕망이 가리키는 문명의 방향이다. 이제 아흔아홉 구비를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당신을 그년한테 훨씬 빨리 데려다 준다고 생각”했다는 한 여인의 절규와 같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빠른 길, 곧은 길이 바른 길이 아닌 것은 개인의 실존에도 거대한 문명의 지침에도 모두 해당된다. 그의 아내는 “한때는 저 다리가 무너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리기도 했다고 털어 놓을 수 없었던 아픔을 토로한다. 그렇게 다리를 저주하던 아내가 문득 “내가 저 다리를 건너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집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었다.

돌아온 아내는 어느 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내와 Y는 “그녀들”이라는 주어로 지칭되기 시작한다. 아내가 Y를 불러 옛 영동고속도로인 대관령 길을 걷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그녀들은 오랜만에 만난 자매나 친한 친구처럼 보였다.”는 서술자의 말은 사이의 고통이 파국이 아닌 새로운 관계의 모색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다. 걸어서 대관령을 넘던 시절 힘이 들면 한 굵이를 돌 때마다 콧감을 하나씩 빼어 먹었다는 이야기 끝에 그녀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눈다.

“힘들지 않아요?”

“걸을 만하네요. 아, 여기서 새 길이 보이네요.”

“고개가 없어진 대신 터널과 다리가 들어섰어요.”

“콧감이 필요 없는 길이네요.”

“잔혹한 길이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들 바쁘다고 아우성이니 그런 것 따위야 쉽게 잊어버리죠.”⁴¹⁾

이 대목은 이 소설이 단순한 불륜담으로 읽히기를 거부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들은 그를 Y에게 더 빨리 데려다 줄 것 같은, 혹은 그보다 더 빨리 그에게서 아내를 떠나보낸 잔혹한 길 위에 서 있지 않다. 그들은 대관령을 굽이굽이 올라가는 구 영동고속도로 위를 걷고 있다. 이 길은 이야기가 있는 길이고, 콧감이 필요한 길이며, 적어도 걸을 만한 길이다. 이런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아내와 Y의 자매애(sisterhood)적 관계는 이야기의 새 국면을 개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어느 여자가 남편의 바람피운 여자를 초대해 함께 소풍을 가겠는가.” 이 과정에서 이들은 모두 대관령 아흔아홉 구비를 다음과 같이 은유한다.

“아흔 아홉은 허파에 바람 든 사내들을 부르는 고갯길.”

아내의 한탄조였다.

41) 위의 책, 159-160쪽.

“고갯길을 바라보며 그 사내를 떠나보내는 여자의 한숨 숫자.” Y의 답가였다.

“밤늦게 그 사내가 회한에 젖어 터덜터덜 돌아오는 길.”

이를 두고 Y가 말한다. “한 굽이를 돌 때마다 그 동안 꺼내놓지 못했던 속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라고. 사람들이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아흔아홉의 구비를 돌며 서로의 운명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관계의 지평으로 나아간다. 이야기가 없는 길은 빠른 길이며 결국 잔혹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아흔아홉 굽이 대관령 길은 신화와 전설을 품고 우리의 생을 위무하고, 질주하는 문명의 폭주를 반성하게 하며, 우리를 화해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5. 설화와 축제의 상관성

강릉단오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나 그 행사의 규모나 문화산업적 가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멀티유정만을 생각하는 문화산업의 논리 그 이전에 제의의 원류, 축제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강릉단오제의 오늘이 있게 한 그 힘의 원동력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신화의 힘이다. 이야기의 힘은 크고 원대해서 온 우주·한 나라한 민족·한 지역의 뿌리와 정체성을 부여한다. 국사성황인 범일국사, 그의 세속적 현신을 위해 덧붙여진 국사여성황은 오늘의 강릉과 강릉단오제의 역사적 원류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작가 윤후명에게 강릉단오제와 국사성황은 고향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주는 신탁의 매개가 되었고, 작가 이광식에게 범일국사는 강릉의 지역적 정체성과 그 역사적 실체를 해명케 하는 모티프가 되었으며, 작가 김도연에게 대관령과 강릉단오제 설화는 아흔아홉 굽이 길의 가치를 확인하며 그 길 위에 깃든 이야기 속에서 비로소 얻게 되는 용서와 회복의 메타포가 되었다.

신화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때 말하는 미래는 서양식 절대주의나 근대적 효율성을 신봉하고 이에 기반하여 더 빨리, 더 많이, 더 멀리라는 이념을 실현하는 데 골몰하는 잔혹한 시간이 아니다. 이 잔혹함에 맞서 우리는 축제라는 일탈의 시간을 예비하고 있지 않은가. 강릉단오제는 바로 신화를 꿈꾸고 이를 통해 인간과 신이 하나가 되어 카니발을 벌이는 가운데, 스스로를 이해하고 세계의 생생화육하는 에너지를 만끽하는 축제다.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은 그의 저서 『여행의 기술』에서 “여행은 생각의 산과”라고 했다. 축제는 바로 우리의 내면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더욱이 강릉단오제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주의 기운을 느끼며 신과 인간이 교통하는 축제이다. 그 축제는 생활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더욱이 생존의 터전에서 보내야 하는 효율적인 시간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자리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일상에 누락된 숭고한 풍경을 만나게 되고 더 놀랍고 새로운 것을 꿈꾸게 된다. 강릉단오제가 이러한 꿈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은 어디까지나 대관령 국사성황·국사여성황·대관령 산신·육성황·소성황으로 대표되는 지혜롭고도 영묘한 설화가 신오(神奧)하게 깃들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윤후명, 「모래부리의 새」 —바다의 전설3,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98. 1.
이광식, 「범일국사」, 『사랑하는 아들에게』, 강릉오죽문학회, 1988.
김도연, 『아흔아홉』, 작가정신, 2012.

국내논저

- 이규대, 「강릉국사성황제와 향촌사회의 변화」, 『역사민속학』 7집, 한국역사민속학회, 1998.
유인경, 「동해안 별신굿 거리굿의 축제극적 성격」, 『한국 문학사의 전개과정과 문학담당층』, 국학자료원, 2002.
윤후명, 「나를 찾아 헤매 온 길」, 『하얀 배』 —1995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1995.
김선풍, 『한국구비문학대계』, 강원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론』, 문학과지성사쪽.
유인경, 「동해안 별신굿 거리굿의 축제극적 성격」, 『한국 문학사의 전개과정과 문학담당층』, 국학자료원, 2002.
윤후명, 「나를 찾아 헤매 온 길」, 『하얀 배』 —1995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1995.
이규대, 「강릉국사성황제와 향촌사회의 변화」, 『역사민속학』 7집, 한국역사민속학회, 1998.
이남호, 『녹색을 위한 문학』, 민음사, 1998.
최승순, 「동제축문 내용고」, 『월산임동권박사송수기념논문집』, 집문당, 1986.
편집부, 『完譯 增修臨瀛誌』, 강릉문화원, 1997.
편집부, 『한국의 전통예술』,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편집부, 「학바위와 범일국사」, 『태백의 설화』 (上), 강원일보사, 1974.
황루시, 「강릉단오제 설화연구」, 『구비문학연구』 14호, 한국구비문학학회, 2002.

번역서

- 이중환 저, 이익성 역, 『擇里志』, 을유문화사, 1971.
아키바 다카시, 심우성 역, 『朝鮮民俗誌』, 동문선, 1993.
볼프하르트 헥만·콜라드 로터, 김진수 옮김, 『미학사전』, 도서출판 예경, 1998.
월리스 마틴, 김문현 옮김, 『소설이론의 역사』 —로망스에서 메타픽션까지, 현대소설사, 1991.

웹사이트

- 강릉디지털문화대전 <http://gangneung.grandculture.net>
한국민속신앙사전 <http://folkency.nfm.go.kr/minsok>

강릉단오제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고찰

조해진(가톨릭관동대학교 문화콘텐츠학 박사)

1. 들어가며

유구한 전통을 가진 강릉단오제와 관련한 연구와 조사는 그동안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이와 관련한 학술행사도 많이 개최되는데 해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생성되고 논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수렴되어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행정절차나 시행절차상 절대적인 시간을 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행주체들간의 구심점을 활용한 원활한 업무진행이 다소 부족한 때문이기도 하다. 강릉단오제 본 행사의 대중화는 물론이고 강릉단오제의 저변확대를 위한 문화콘텐츠의 창작과 제작 또한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듯 하다.

주지하듯 문화콘텐츠의 성패는 대중성확보다. 그리고 대중성은 항상 시대를 달리한다. 수십년에서 수년에 걸쳐 유행은 바뀌고 트렌드는 변화한다. 이는 기술의 발달, 사회제도의 변화, 사회환경의 변화, 소득수준의 변화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대중들의 ‘스토리에 대한 관심’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영화관객 74%가 영화의 줄거리를 보고 영화관을 찾는다고 답했으며 ⁴²⁾ 세계적인 시나리오 권위자인 로버트 맥기에 의하면 이야기를 향한 인간의 욕망은 채워질 줄 모른다고 한다.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가장 다산성의 예술 형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 수행하는 일, 놀이, 식사, 운동 등 모든 활동에 필적할 만한 비중을 가지는 일상 활동이다. 우리는 잠자는 시간만큼이나 오랜 동안에 걸쳐 이야기를 말하고 또 듣는다. 심지어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꿈을 꾸는데 이 때 이야기는 현실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싣고 현실을 찾아나서는 추진체이며 실존의 무정부적인 상태에서부터 질서를 찾아내려는 우리들의 가장 진지한 노력이라는 것이다.⁴³⁾

본고는 문화콘텐츠에 관한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지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

42) 연합뉴스, <관객 74% 영화 고를 때 고려하는 건 줄거리>, 2013년 3월 7일자(검색일 2014 11월 20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6133852&sid1=001&lfrom=twitter>

43) Robert mckee, *Story: Substance, structure, style, and the principle of Screenwriting*(Itbooks, 1997) 11쪽

를 인정받은 강릉단오제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2. 강릉단오제 문화콘텐츠 현황

현재 강릉단오제와 관련하여 생산되어 향유되는 문화콘텐츠는 ‘관노가면극’과 ‘다노네다노세’ 공연이 대표적이다. 이 두 문화콘텐츠는 공연콘텐츠의 범주에 속하는데 먼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관노가면극’의 경우 관노가면극 보존회를 중심으로 전승과 상설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전수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둘째, 상설공연이 경포 상설공연장과 보존회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셋째, 청소년 어울마당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운영되고 있고 넷째, 매년 12월 전승평가발표회를 개최해 강릉관노가면극의 올바른 전승보존과 전통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고 있으며 다섯째, 학습교재용 종이탈을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관노가면극의 대중화에 노력하고 있다.

‘다노네다노세’는 강릉단오제의 공개행사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제례, 단오굿, 관노가면극을 하나의 공연콘텐츠로 재구성하여 무대화시킨 작품으로 강릉단오제 본행사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어 점차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그림1> 다노네다노세 포스터



<그림2> 다노네다노세 공연내용

강릉단오제와 관련한 문화콘텐츠는 위에서 언급한 두 행사를 제외하면 뚜렷한 작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콘텐츠의 범위를 공연콘텐츠에서 좀 더 넓혀 미디어콘텐츠까지 확장해서 살펴보면 <표 1>에서처럼 강릉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다수 보이지만 강릉단오제와 직간접으로 관련한 미디어콘텐츠는 찾아보기 힘들다.

<표 1> 강릉지역과 관련한 최근 미디어제작 현황

매체	제목	내용
TV예능	1박 2일	338회-조연배우 특집편 361회-김치로드편 363회-강릉 오감여행편
	무한도전	146회 돌아이 콘테스트
	식신로드	2편-강원도 맛집 투어
	우리 결혼했어요	정용화, 서현 커플편
	아빠 어디가?	강릉 현덕사편
TV드라마	궁	16회-경포, 선교장
	빠스켓 볼	관동대학교 농구장
	모래시계	정동진 역
	황진이	선교장 장소제공
	바람의 화원	선교장 장소제공
	공주의 남자	선교장 장소제공
	식객	선교장 장소제공
	구가의 서	허균허난설헌 생가
	세번 결혼하는 남자	강릉 여객 터미널
영화	드라마의 제왕	강릉 경포해변
	주문진	주문진 항 배경
	사랑하니까 팬클럽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 배경
	봄날은 간다	오죽헌 배경
	내아내의 모든 것	강릉 전 지역, 하슬라 호텔 등
	내가 고백을 하면	강릉 전 지역 배경
	강원도의 힘	동해 해변 배경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릉단오제와 관련되어 개발된 문화콘텐츠는 그리 범위가 넓지 않지만 강릉단오제의 경제적가치는 매우 높다.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생산효과는 900억원에 이르고 12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11년 강릉단오제 총 경제적 파급효과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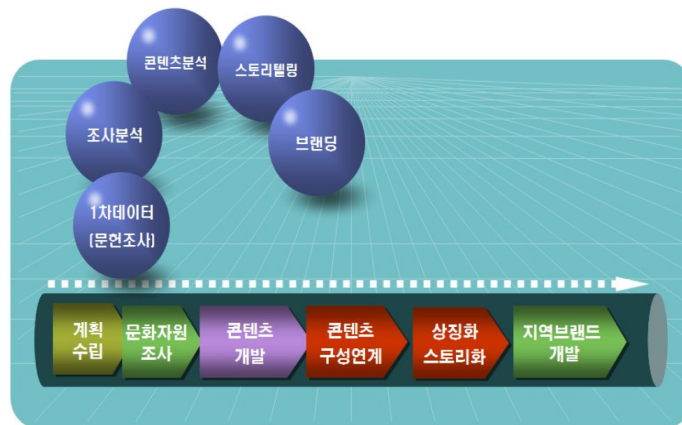
범위	유발효과 지출	생산 (백만원)	부가가치 (백만원)	소득 (백만원)	취업 (명)
지역내	소비지출	63,531	32,626	11,527	1,019
	재정지출	998	523	198	14

44) 정옥영·김영표, <2011 강릉단오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 24권 제 5호》, 관광레저학회, 2012, 357쪽

	계	64,529	33,149	11,725	11,033
지역외	소비지출	25,412	9,758	3,388	195
	재정지출	403	154	62	3
	계	25,815	9,912	3,450	198
전지역	소비지출	88,943	42,384	14,915	1,214
	재정지출	1,401	677	260	17
	계	90,344	43,061	15,175	1,231

위의 자료는 강릉단오제에 대한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위상을 바탕으로 전략적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강릉단오제의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확산은 강릉, 강원도 나아가 국가브랜드 구축에 도움을 주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림 3>이 보여주듯 지역의 문화자원은 스토리개발 등의 콘텐츠개발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브랜드를 형성하여 장기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경제적자원이 된다.



<그림 3> 지역의 스토리개발을 통한 브랜드화 과정⁴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강릉단오제와 관련한 문화콘텐츠가 많지 않은 반면에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확산은 지역 및 국가의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와 실행은 시급하다 하겠다.

45) 류정아 외, <지역문화 정책분석 및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40쪽

3. 강릉단오제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1) 스토리자원 확보⁴⁶⁾

문화콘텐츠산업은 스토리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스토리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처럼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향유에 있어서 스토리는 핵심요소다. 때문에 문화콘텐츠개발에 있어서 스토리자원의 확보는 필연적인데 강릉단오제와 관련한 문화콘텐츠 역시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브랜드 구축에 있어서 스토리구현이 의미있다고 주장한 김태욱과 노진화에 따르면 브랜드에 내재된 스토리는 범박하게 봐서 기업 내부스토리, 소비자 체험스토리, 마케팅용 창작스토리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⁴⁷⁾ 스토리의 탄생과 관련한 이런 구분방법은 문화콘텐츠의 스토리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브랜드구축과 활용을 위한 이런 구분법을 ‘문화콘텐츠의 원천소재개발’까지를 포함한 문화원형 스토리의 구분에 수정없이 그대로 적용시키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내부스토리를 탄생스토리로, 체험스토리를 관련스토리로, 창작스토리를 문화유산 창작스토리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 구분법에 관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스토리자원 구분

브랜드 스토리	문화콘텐츠 스토리	비고
기업 내부스토리	탄생스토리	대상(유,무형의 문화재, 인물, 관습 등 문화원형)의 탄생, 창건, 생성에 관한 스토리
소비자 체험스토리	관련스토리	대상과의 경험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스토리
마케팅용 창작스토리	(문화유산)창작스토리	문화콘텐츠 작품을 위해 창작된 스토리

탄생스토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탐색해야 할 영역이긴 하지만 기존의 연구결과가 비교적 풍부하게 존재하는 편이기 때문에 새롭게 발굴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영역이다. 그리고 창작스토리는 발굴된 스토리자원을 이용하여 문화콘텐츠의 기획과 맞물려서 실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탐구대상인 강릉단오제와 관련하여 체

46) 이번 장에서 다루고 있는 스토리자원 조사 내용은 본고의 저자가 ‘2014 강원문화재단 학술연구진흥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 <강릉단오제 스토리자원 조사연구>로 얻어진 결과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언어문화학회에서 발행되는 전문학술지 <한국언어문화학회지, 12월호, 2014> 및 2015년 발간될 단행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47) 김태욱·노진화, 《브랜드 스토리마케팅》,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59-61쪽

험되고 경험되면서 생성된 ‘관련스토리’⁴⁸⁾의 발굴을 강조하여 말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문화콘텐츠의 원천소재로서의 문화원형과 관련한 스토리자원을 전술한 <표 1>과 같이 탄생스토리, 관련스토리, 창작스토리로 구분하는데 탄생스토리와 창작스토리는 비교적 잘 알려진 반면 관련스토리는 아직까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탄생스토리와 비교할 때 강릉단오제와 같은 문화원형 대상과 관련한 일반인 개인들의 체험으로 생산된 스토리인 관련스토리가 문화콘텐츠의 창작소재로서 관심과 주목을 덜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탄생스토리는 유한한 자원이고 고정된 자원인데 반해 관련스토리는 지금도 계속 생산되고 있는 자원임을 고려할 때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⁴⁹⁾ 그리고 다수에 의해 생산된 다수의 아이디어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확률이 많다는 ‘브레인스토밍’식 관점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하는 관련스토리는 대중문화콘텐츠 스토리구성에 있어서 일정부분 가치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존에 많이 발굴되어 자료화 된 탄생스토리보다는 전문가를 포함한 강릉단오제를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된 관련스토리에 보다 중점을 두고 스토리자원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릉단오제와 관련한 사람들에 의한 관련스토리가 많은 것이 당연하므로 강릉단오제와 관련한 단체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스토리자원 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강릉단오제는 모두 3개의 기관에 의해 운영, 진행되고 있는데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사)강릉단오제보존회, 단오문화관이 그것들이다. <표 4>는 강릉단오제와 강릉단오제 행사를 진행하는 각 단체들의 업무내용과 사업내용을 보여준다.

<표 4> ‘강릉단오제’ 본행사와 주관 단체들의 주요 업무내용

구분	내용	주요 사업
강릉단오제 본행사	음력 3월 20일 - 5월 6일	- 신주 빚기 - 서낭신 모시기 - 신목 모시기 - 영신행차 - 단오굿 - 소제

48) 스토리의 효용성을 마케팅에 접목시킨 브랜드마케팅에서는 소비자의 경험과 관련된 스토리의 효과를 체험스토리로 설명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구매경험을 다시금 새로운 브랜드 스토리로 엮어 파급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경험에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첨가하여 새로운 스토리를 구성하라는 말이다. 이는 브랜드에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이자 브랜드에 가치를 불어오는 소비자의 힘으로 보는데 이런 스토리는 브랜드스토리 형성의 중심에 있다. (김훈철·장영력·이상훈,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기술》, 벤토르, 2013, 81쪽) 체험스토리 즉 관련스토리는 이런 효용성으로 인해 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의 영역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49) 관련스토리의 사례는 멀게는 <홍장고사(紅粧故事)>로부터 가깝게는 <모레시계>를 들 수 있는데 <홍장고사>는 기생 ‘홍장’과 ‘박신’의 연애담으로 무대인 ‘경포대’와 ‘경포호’를 배경으로 만들어져 전해져 오는 이야기이다. <모레시계>는 TV드라마로 ‘정동진’을 배경으로 한 주인공들의 에피소드가 유명해지면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사)강릉단오제위원회	강릉단오제 행사를 조직, 기획, 운영하며 강릉단오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	-행사기획 및 운영 -학술연구 및 콘텐츠 개발 -단오문화 교육 및 홍보 -축제 협력 및 교류
(사)강릉단오제보존회	강릉단오제 주최 및 강릉단오제 보존 전승을 위한 문화재청 산하 법인	-강릉단오제 공개행사 주최 -전수교육 및 문화예술교육사업 -기획 및 창작공연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단오문화관	강릉단오제 홍보전시, 체험 및 공연관람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	-단오홍보전시 -강릉단오제 역사문화탐방 -전통문화교실 -상설공연 및 기획공연 -시설대관(공연장, 세미나실)

최근 필자와 연구진들이 ‘2014년 강릉단오제 행사’에 투입되어 면대면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강릉단오제와 관련한 스토리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원들의 업무영역과 활동기간을 표시하면 <표 5>과 같다.

<표 5> 연구원들의 업무기간 및 업무영역

구분	연구기간	비고
주저자 (1인)	2014년 4월 30일-2014년 10월 30일	조사연구 총괄 및 집필
보조저자 (1인)	2014년 4월 30일-2014년 10월 30일	사전조사 + 조사진행 + 자료정리
자료조사원 (4인)	2014년 4월 30일-2014년 8월 30일	현장조사(인터뷰) 진행

강릉단오제의 스토리자원 조사를 위해 먼저 스토리자원 조사표를 만들어서 문헌자료, 인터뷰자료 등을 구분하여 수집하는데 활용하였는데 본 조사에서 사용한 스토리자원 조사표는 <표 6>와 같다.

<표 6> 스토리자원 조사표의 예

조사날짜	2014년 6월 3일	조사원	임지우, 서도현
인터뷰 대상 (문헌자료)	한은진씨(자원봉사자 실장)	소속 (주소)	강릉단오제 자원봉사 강릉시
스토리구분	관련	인터뷰 장소	조해진 교수 연구실
제목	가교 붕괴 사건에 대한 단상		
스토리 내용	한은진씨는 가장 인상 깊은 사건으로 가교 붕괴 사건을 꼽았다. 그 당시 간이다리가 구조상 전시용일 뿐이지 실질적인 다리 역할을 해낼 수 있		

	던 다리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당시 불꽃놀이를 더 잘보려고 했던 인원들의 욕심으로 다리가 인원들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리가 무너지고 나서 언론을 통해서 방송이 나갔는데 실제 피해에 비해 언론이 너무 과대 과장 보도를 했다고 한다. 그 뒤 피해들과 사후 처리 과정에서 꼼꼼히 오랜 기간을 거쳐 처리를 했다고 한다. (운전자 사고처럼 합의금으로 때우는 방식이 아니었다고 함.)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안전에 관한 관심이 매우 늘어나 사후 안전 사고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가교를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
특이사항	현재는 가교와 징검다리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사람들의 왕래를 돕고 있다

위와 같이 만들어진 조사표를 갖고 문헌자료와 인터뷰 등을 통해 스토리자원을 조사했는데 스토리자원의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표 7>와 같다.

<표 7> 본 조사에서 얻어진 스토리자원의 예

NO.	출처	스토리구분	내용
1	강릉단오제 현장탐구론 (문헌자료) , 장정룡, 국학자료원 , 2007	탄생	나말여초(羅末麗初)의 고승인 범일국사(梵日國師)와 조선시대 정씨가 딸이 성황신 부부가 되었다. 이 두 신을 모시는 행사는 유교식 제례, 무속굿, 관노가면극을 통해 ‘영신-오신-송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1	임한택 (인터뷰)	관련	옛날에는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서 대관령 길을 올라가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처럼 길이 잘 닦여진 것도 아니었고 올라가기 위한 교통수단도 여의치 않았기 때문인데 그때에는 대개 쓰레기차를 이용했다고 한다. 쓰레기차가 더러우니 뒤를 말끔히 씻어내고 나서 사람들이 함께 타고 이동했다고 한다.
2	김현각 (인터뷰)	관련	음력 4월 15일에 서낭님을 모시러 가야하는데 아침에 너무 늦더라. 늦게야 오셔서 어디 갔다가 오시냐 했더니 대관령에 갔다 오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새벽 4시경 자신의 꿈에 서낭님이 나오셔서 나무라셔서 그 길로 택시를 타고 가셔서 기도를 드리며 빌고 왔다고 한다. 원래 후임을 쓸 때에는 서낭님께 가서 후임을 소개하고 빌어야 하는데 그러한 의식을 하지 않아 서낭님이 노하신 것이라고 보인다.

3	조민규 (인터뷰)	관련	관동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조민규(24)씨는 단오제를 맞아 사학과 금성무 동아리 주최로 단오 캐릭터를 탁본 할 수 있는 탁본 체험을 실시했다고 한다. 비가 많이 와서 인지 찾는 사람의 수가 적어 이번 체험이 조금은 아쉽다고 말했으며 진상 손님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 중에는 1회에 2천원인데 잘 안된다며 혼자 여러 개를 하는 바람에 뒷손님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거나 그 중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는 손님도 더러 있었다고 한다. 가장 인상에 남았던 손님은 부채를 직접 들고 와서 부채에 탁본을 해 간 손님이 있었다고 한다. 생각보다 훨씬 잘 나와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고 부채에 탁본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다른 행사장에서 부채 만들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부채를 가져오는 손님에 한해서만 부채에 탁본을 한다고 한다. 외국인 손님들도 많았는데 통역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지만 서로 문화를 체험하려고 노력하거나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기에 말이 통하지 않아도 문화를 통해 서로가 전달 받는 느낌이 아주 좋았다고 한다.
4	차기홍 (인터뷰)	관련	술을 먹으면 날씨도 덥고 몸에 열이 올라 친구들과 끼리 남대천에 뛰어 들어가곤 했다고 하며 지금은 남대천에 들어가면 ‘왜 저길 들어가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는 등목도 자주하고 물고기도 잡는 곳이었다고 말했다.
5	허규연 (인터뷰)	관련	해설자로 행사를 설명한지 벌써 6년째인 그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행사와 관련하여 공부를 많이 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일본인 관광객 중 상당수가 관노가면극의 주인공들의 이름을 외워오는 등의 열정을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정확하게 우리 문화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전하였으며 와이 파이(근거리 무선망)가 엉망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6	알렉스 (인터뷰)	관련	네덜란드, 한국인 친구와 함께 단오제를 찾은 Alex(만 21)는 처음 참가해 본다고 하며 들뜬 마음을 내비추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영국에는 이만한 축제가 없다며 한국에 이런 축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 보기 좋고 부럽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불비는 거리 축제가 좋아 보인다고 하며 인터뷰어가 단오장에서 물건을 하나 사면 1년이 잘 풀린다고 전하니 지금 당장 물건을 사러 가야겠다며 웃어보였다.

7	조남환 (인터뷰)	관련	단오장에는 해마다 전국 8도 야바위꾼이 다 모여 들었다. 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도 막심했고 뒷이야기도 많았다. 어떤 촌로는 소 판 돈을 다 털렸다가, 겨우내 길쌈을 맨 삼베 판 돈을 몽땅 잃고 남대천 제방에 두다리를 뺀 통곡 한 아낙이 부지기수라는 얘기 등이다. 어쨌든 학교 주임 선생님들께 야바위 등 학생들의 위험환경을 근절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니 이행하리라 마음을 먹고 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서장님, 강릉지검 수사과장, 사무과장, 담당검사, 지청장님을 한분씩 찾아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했다.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공감을 표시하고 흔쾌히 협조해 줄 것을 약속, 공조체제가 유지되어 사행행위는 단오장에서 사라졌다.
---	--------------	----	--

위의 결과를 포함하여 이번 조사연구를 통해 모두 441개의 스토리자원이 발굴되었는데 이번 조사의 결과값 개요는 <표 8>과 같다.

<표 8> 총 조사 결과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조사일시	2014년 4월 30일-2014년 10월 30일	강릉단오제 본행사 포함
조사인원	6명	주저자, 보조저자, 자료조사원
조사대상자 수	154명	전문가 및 일반인
발굴스토리 수	441개	탄생스토리 54개 관련스토리 387개

2) 캐릭터 확보

캐릭터는 그 범위와 종류가 다양하여 정의내리기가 쉽지는 않으나, ‘소비자나 대중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름, 성격, 행동 등에 강한 개성이 담겨져 있는 인물이나 존재로서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기 위해 조형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이런 캐릭터의 특징을 세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캐릭터는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한다. 문화적, 미학적 측면에서 감정이입의 효과를 가지는 캐릭터들은 대중과 쉽게 친화되며 오래 기억되는 특징을 가진다. 세대와 성별차이를 초월하여 많은 수용자들에게 공감과 호응을 유발하며 효과적인 시각언어로 연상이나 인

지에 영향을 미쳐 제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시각적 활력소의 역할도 한다. 둘째, 캐릭터는 이미지로 생성되어 다수의 수용자,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므로 손쉽게 소유할 수 있다. 소유가 쉽다는 것은 대단히 매력적인 특징이며 캐릭터 산업의 근간이 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셋째, 우상화의 대리만족적 특징을 가진다. 다른 세계 속으로의 몰입 또는 다른 모양이나 크기로 변화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수천년동안 종교나 의식, 춤 등에 지속적으로 내재되어 왔다. 캐릭터는 이런 욕망의 현대적 대리물로써 본인과 주변의 상황을 대신하여 꿈과 상상을 표출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⁵⁰⁾

이런 특징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해 애플 투어 캐릭터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캐릭터 왕범이는 1998년 2월 19일부터 공식 사용되고 있으며, 전통민화에 나오는 한국 호랑이를 반영하여 국건한 기상, 열린 마음, 높은 이상, 밝은 마음을 나타내고 전체적으로 ‘자랑스런 서울 시민의 모습’을 상징한다. 인천광역시에는 인천의 시조인 두루미를 소재로 대표 캐릭터로 제작하였으며, 이름 역시 두루미다. 경기도 블루링-지구돌이는 31개 산하 시/군을 강력한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준다는 뜻으로 경기도 마크에서 파생되었으며 다른 지자체의 동물 캐릭터와는 차별적이다. 강원도는 강원도의 상징동물인 반달곰을 소재로 반비를 제작하였다. 반비는 ‘미래로, 세계로, 통일로 비상하는 반달곰’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충청북도는 21세기의 주역이 될 남녀 어린이를 형상화하여 ‘고드미, 바르미’를 제작하였다. 충청남도의 ‘귀도리, 귀여미’는 착실하게 한발 한발 걸어나가는 거북이를 형상화하였다. 배의 왕자와 으뜸을 지칭하는 손모약은 그림자로 표현된 한반 중심에서 으뜸이 된다는 의미이며, 귀도리 라는 뜻은 ‘거북 구’ 자 또는 ‘귀할 귀’자와 목표와 방향을 뜻하는 도리 또는 바른 길을 뜻하는 도리 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를 살펴보면 <표 9>과 같다.

각각의 캐릭터가 의미와 특징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대중들에게 어필되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 특히 문화콘텐츠에 있어서 그 의미가 더한데 전술하였듯 문화콘텐츠의 핵심요소인 스토리는 캐릭터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캐릭터에 녹아있는 스토리는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람과 사회 사이의 유대감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연속체로 조직하며, 물질적인 세계와 형이상학적 세계에 관해 설명한다. 즉, 스토리를 통해 의식을 연결하는 과정은 수용자에게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 주며 의미있는 가치를 제공한다. 지자체 캐릭터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공략하는 것으로 스토리를 통해 가치를 강화시킨다. 캐릭터는 허구적인 존재이며 스토리를 텔링할 수 있는 수단으

50) 이윤수·이선교, <지방자치단체 캐릭터의소재와 표현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Vol.2. No.2. 2002, 75-76쪽.

로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존재감을 강화시키고 친밀감과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자체 캐릭터는 존재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캐릭터를 매개체로 새로운 공간을 확장하고 지자체라는 화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꾀하게 된다. 화자와 수용자 간의 연결은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캐릭터와 지역민, 지역에 대해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과 의미를 공유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반응은 자연스럽게 지역과 관련한 소비활동으로 이어지게 만들며 또 다른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스토리가 빈약한 캐릭터는 이미지 외에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며 화제의 부족은 캐릭터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를 하락시키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렵다.⁵¹⁾

<표 9> 지방자치단체 캐릭터들⁵²⁾

광역 자치단체	캐릭터	광역 자치단체	캐릭터
서울 특별시	 왕범이	부산시	 부비
인천시	 CLEAN INCHEON	대전시	 한꿈이와 꿈돌이
광주시	 빛돌이	대구시	 패션이
울산시	 해울이	경기도	 지구돌이
강원도	 반비	경상남도	 경남이와 경이
경상북도	 신나리	전라남도	 남도과 남이
전라북도	 신명이	충청남도	 귀도리
충청북도	 고드미와 바르미	제주도	 돌과 바람

51) 이선영·이승진, <지방자치단체 캐릭터의 활용전략 연구, 유투캐라 ‘쿠마몬’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연구, Vol. 10, No. 2, 통권 제 29호, 263-264쪽

52) 김미영·정한경, <지방자치단체 캐릭터의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연구>, 디자인학연구, 2005, 30쪽

스토리가 담긴 캐릭터의 활용의 대표적 사례는 일본 아마쿠사현의 ‘쿠마몬’이다. 쿠마몬은 <그림 4>과 같은 이미지로 <그림 5>에서처럼 국왕을 맞이하는 공식행사에서도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하는 공식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림 4> 쿠마몬 캐릭터



<그림 5> 국왕을 맞는 공식행사를 진행하는 쿠마몬

‘쿠마몬’의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프로필을 만들고 어떻게 탄생했는지 탄생설화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쿠마몬’의 스토리텔링은 지역민과 시간을 공유하며 만들어진 스토리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스토리를 선택했다. 홈페이지에 ‘쿠마몬’의 활동을 게재하고 관광지에 신출귀몰하여 지역민과의 만남으로 경험담 스토리텔링을 만든다. ‘쿠마몬’ 홈페이지 카테고리 중 ‘쿠마몬’ 블로그는 ‘쿠마몬’의 활동을 단순히 남기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아마쿠사의 교통안전 박람회에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서 아마쿠사의 바다를 배경으로 스토리를 먼저 쓴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 활동모습을 보이며 단순히 ‘쿠마몬’의 활동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야깃거리를 전달한 후 커뮤니케이션 코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스토리텔링은 소비자의 경험을 주도하며 동일시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감정은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여 브랜드와 감성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⁵³⁾

국내에서 캐릭터사용의 성공적 사례는 전라남도 장성군의 홍길동으로 장성군은 1998년 ‘홍길동’ 캐릭터를 제작하였으며, 제작이후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으로 TV시리즈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OST, 휴대전화 벨소리, 컬러링까지 인기를 모았으며, 교육용 출판만화로도 출판되어 베스트셀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모바일 게임과 50여종의 다양한 캐릭터 상품도 선보였고, 2011년 홍길동 극장용 3D 애니메이션이 개봉되어 장성군은 홍길동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수익 창출과 함께 지역홍보효과 또한 크게 누리고 있다. 홍길동을 장성군에게 빼앗긴 강릉시로서는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강릉단오제의 캐릭터가 도시홍보용 캐릭터와 그 의미와 내용이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브랜드를 구축하고 상징성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하겠다. 따

53) 위의 글, 267쪽

라서 강릉단오제를 대표할 캐릭터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관노 가면극과 단오행사를 통해 구축할 수 있는 캐릭터들은 <표 8>와 같다.

<표 8> 강릉단오제 대표 캐릭터들

캐릭터	이미지	스토리텔링&이미지텔링
양반광대 소매각시		양반은 배꼽까지 내려오는 긴 수염을 기르고, 담뱃대와 부채를 가지고 위엄을 부린다. 소매각시는 하얀 얼굴에 쪽진 머리를 하였으며 양쪽 볼에 연지를 찍었다. -(양반광대와 소매각시 캐리커처) 
시시딱딱이		무서운 모습의 벽사가면을 쓰고 손에는 칼을 들었다. 입술은 두껍고 한 자 오 푼 이상 깨졌고, 코는 울퉁불퉁하며 뻥뻥하게 얹고 붉은 칠, 검은 칠을 한 아주 무서운 탈이다.  시시딱딱이
장자마리		일명 ‘보쓴놈’이라 부르는데, 머리부터 자루 모양의 장삼 비슷한 것을 땅에 끌리도록 쓴다. 또한 허리에는 둥근 대를 넣어 두 손으로 안고 춤을 춘다. 옷에는 여기저기 해초를 달았다.  장자마리
범일국사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대관령국사성황’으로 신앙되고 있다.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의 수호신으로, 해마다 강릉단오제를 통해 제의를 받는다 

캐릭터의 소재는 이렇듯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역시 관건은 각 캐릭터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이미지텔링이다. 그리고 대표 캐릭터를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연구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관심과 연구는 물론이고 행사의 주체인 ‘강릉단오제 준비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강릉시’의 지원과 협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3) 스토리자원과 캐릭터의 보급과 활용

강릉단오제와 관련되어 수집된 스토리자원의 활용방안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세 개의 단체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는 강릉단오제 준비위원회에 스토리자원을 제공해 통합적으로 인지, 활용해야 한다. 최근까지 생산된 관련스토리들이 ‘대관령국사황사’, ‘연신행차’, ‘단오굿’, ‘유교식 제례’, ‘강릉관노 가면극’, ‘학산 오독떼기’, ‘사천 하평답교놀이’ 등의 강릉단오제의 전통적인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가공된다면 시너지는 더욱 커질 것이다. 개별스토리의 파편적인 활용보다는 수직, 수평적인 스토리의 결합은 브랜드개발과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집된 스토리자원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선 공공기관이나 연구소의 직접 개입 혹은 스토리텔링마케팅 전문업체에게 제공하고 협조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현재 국내에 다수의 스토리텔링마케팅업체들이 사업을 발전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2018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들 업체들이 강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시점은 강릉단오제를 스토리텔링 마케팅의 소재로 그리고 수단으로 만들기에 호기이기 때문이다.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마케팅의 원천소재로서 수집된 강릉단오제 관련스토리는 미디어 즉 방송과 영화 등을 비롯해서 지역축제와 같은 행사에서 활용될 수 있다. 지역이라는 특징 이외에 그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특징이 드러나는 스토리가 포함될 때 그 지역의 문화자원은 더욱 가치를 더 하게 되기 때문에 미디어나 문화콘텐츠 관계자들에게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련한 장소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소재와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스토리텔링마케팅의 본질에 더 충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영화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해진 뉴질랜드의 ‘타마타마’, 드라마 <겨울연가>의 가평의 ‘남이섬’ 등이 그 성공사례라 하겠다.⁵⁴⁾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강릉단오제와 관련한 스토리자원이 문화콘텐츠 창작과 제작 그리고 스토리텔링마케팅의 소재로 작용할 때 그 효과는 분명 클 것이다.

두번째는 스토리개발과 더불어 파생적으로 생산이 기대되는 캐릭터 분야다. 현재 강릉지역엔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부재한 상태다. 예전에는 홍길동 캐릭터가 사용되었지만 전남 장성에게 사용권을 뺏긴 후 현재는 시목인 소나무의 이미지가 캐릭터를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살아움직이는 캐릭터가 아니라서 활용에 다소 제약이 있고 대중들에게 아직까지 크게 어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릉단오제’엔 많은 캐릭터가 존재한다. ‘장자마리’, ‘시시딱딱이’, ‘영신’, ‘국사성황’, ‘김유신’을 비롯한 지방 곳곳에 존

5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줄고(조해진, <지역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마케팅 적용에 관한 고찰>, 인문학연구, 인문과학연구소, 2013)을 참조하라

재하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관심영역, 관객들의 관심영역, 체험빈도 등이 일정부분 확인됨에 따라 강릉시를 대표할 다양한 캐릭터가 강릉단오제를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진흥, 생활환경 개선, 문화촉진, 복지향상, 관광개발, 정보사회의 대응, 국제교류 촉진 등의 목표를 가지고 조형적으로 단순하고 친근감있는 조화로운 캐릭터를 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의 참여로 개발되어야 하며, 성공적으로 정책이 집행되어 지역 활성화를 꾀하여 다른 영역으로의 ‘콘텐츠사업’을 이루어야 한다. 이때 캐릭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기획, 마케팅, 홍보에 이르는 토탈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한다.⁵⁵⁾ 강릉단오제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반드시 강릉의 캐릭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강한 시너지를 얻기 위해선 이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더 신중하고 깊이있게 전개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세번째는 수집된 스토리자원들의 직접적 제공방식과 관련한 부분인데 지역의 공공기관, 문화단체, 문화주체들이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홈페이지에 스토리자원을 공개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일종의 ‘스토리 아카이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강릉단오제와 관련한 여러 기관과 단체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굴되고 개발된 스토리자원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관련스토리를 자유롭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아카이브 구축은 국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시행하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 등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소수의 기관이나 전문가들에 의해 생산되고 관리된다는 점에서 본고의 활용방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비용의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기업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산방식과 저장방식은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홈페이지를 통한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생산과 이용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또 스토리자원의 생산이 실시간으로 거의 무한대로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물론 이론적인 면이 강하긴 하지만 강릉단오제와 같은 문화유산의 체험자, 경험자들의 참여와 이를 활용하고자하는 문화콘텐츠 창작자와 스토리텔링마케팅 제작자들은 양적인 면에서 분명 이전의 방식을 능가할 것임엔 틀림없다. 강릉단오제와 관련한 기관과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여기서 제시한 8개의 홈페이지들에 모두 강릉단오제 스토리자원과 관련한 참여형 공간을 제공하고 이들 간에 링크를 비롯한 공유가 활발해진다면 강릉단오제의 스토리자원 활용은 기대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55) 이승진, <지방자치단체 캐릭터 개발 모델 연구-전남 장성군 홍길동 사례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 2008, 137쪽

<표 9> 강릉단오제와 관련한 기관과 단체의 홈페이지 주소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단오문화관	www.danocenter.kr
강릉문화원	www.gncc.or.kr
단오보존회	www.danoje.or.kr
강원문화재단	www.gwcf.or.kr
강릉문화재단	www.gncaf.or.kr
단오제 준비위원회	www.danojefestival.or.kr
관노가면극 보존회	www.kwanno.or.kr
강릉시	www.gangneung.go.kr
문화콘텐츠닷컴	www.culturecontent.com

5. 마치며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산업의 활성화에 있어서 스토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강조되며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스토리를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태도 또한 점차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토대위에서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전통있는 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와 관련한 스토리는 경제자원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기대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강릉단오제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그동안 탄생스토리와 창작스토리에 집중되었던 관심을 관련스토리까지 확장시켰다는 점이다. 필자와 연구진들은 2014년 스토리자원 조사를 통해 총 441개의 스토리를 수집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대부분의 스토리는 어쩌면 그 자체로서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기 힘들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문화콘텐츠 창작자나 제작자에 의해 가공되거나 전체 스토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작은 부분이나마 이용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양에 있어서 유한한 탄생스토리와 달리 창작스토리에 지속적으로 소재와 모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관련스토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생산되는 무한한 자원임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강릉단오제를 대표한 캐릭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점이다. 지역의 캐릭터의 유효성은 이미 검증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효용성을 얻기위해 강릉단오제의 캐릭터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논의는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하게 산재되어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스토리자원의 생산과 소비를 확산시켜 줄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지역의 공공기관, 진흥기관, 행사주최단체 등은 거의 대부분 온라인 커뮤니티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

다. 이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조사된 강릉단오제 관련 스토리를 실어 일반인은 물론 문화콘텐츠 창작전문가들에게 소재를 제공하고 나아가 일반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지속적인 스토리발굴과 개발의 문을 자유롭게 열어둔다면 소재제공자와 창작자들 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문화콘텐츠 스토리창작을 기대할 수 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현실성있는 방안이라 본다. 이런 상호작용적 스토리생산의 출발점으로 이번 조사연구에서 실시한 강릉단오제와 관련한 스토리발굴과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은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문의 내용에 하나 덧붙인다면 전국 각지에 산재한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관련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 또한 본고의 결과물이다.

문화콘텐츠와 문화콘텐츠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정부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개발에 힘써 왔다. 그 활동의 대표적인 사업이 한국콘텐츠진흥원(사업 당시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한 ‘문화원형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수많은 결과물이 생산되어서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대부분 탄생스토리 혹은 시대적으로 비교적 오래된 관련스토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순간에도 생산되고 있는 관련스토리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확인하며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또 그렇게 함으로서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고가 일정부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유사한 조사연구 방법론을 강릉의 또 다른 문화자원인 ‘오죽헌’, ‘경포대’, ‘강릉선교장’ 등에 적용한다면 경제자원으로서의 스토리가 양적인 면에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생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강릉단오제가 열리는 강원도 강릉시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지역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관광과 홍보의 절호의 기회라 판단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강릉단오제와 관련한 문화콘텐츠화에 대한 논의는 강릉단오제가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데 일조할 문화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문화유산과 관련한 ‘관련스토리’가 경제자원으로서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가 작지만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와 관련한 후속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또한 기대한다.

<Reference>

- 김미영·정한경, <지방자치단체 캐릭터의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연구>, 디자인학연구, 2005
- 김태욱·노진화, 《브랜드 스토리마케팅》,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 김훈철·장영력·이상훈,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기술》, 벤토르, 2013
- 류정아 외, <지역문화 정책분석 및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반정화·민현석·노민택, <서울시 근대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서울연구원, 2009
- 이선영·이승진, <지방자치단체 캐릭터의 활용전략 연구, 유루캐라 ‘쿠마몬’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연구, Vol. 10, No. 2, 통권 제 29호, 2009
- 이승진, <지방자치단체 캐릭터 개발 모델 연구-전남 장성군 홍길동 사례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 2008
- 이윤수, 이선교, <지방자치단체 캐릭터의 소재와 표현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Vol.2. No.2. 2002,
- 이창식, <강릉단오제 관련 설화 연구의 동향과 전망>, 《강원도민속학 23집》, 강원도민속학회, 2009
- 정옥영·김영표, <2011 강릉단오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 24권 제 5호, 2012
- 조해진, <지역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마케팅 적용에 관한 고찰>, 인문학연구, 인문과학연구소, 2013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관광부, 2013
- Robert mckee, Story:Substance, structure, style,and the principle of Screenwriting, Itbooks,1997
- 연합뉴스, <관객 74% 영화 고를 때 고려하는 건 줄거리>, 2013년 3월 7일자(검색일 2014 11월 20일)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6133852&sid1=001&lfrom=twitter>

부 록

1. 단오 관련 시들 전문
2. 단편소설, 「범일국사」

단오 관련 시들 전문

단오(端午)

운곡 원천석

바람 따뜻하고 날씨는 청명한데 / 薰風微軟氣清新
집집마다 문 위에 쑥 사람을 걸어 놓았네 / 萬戶千門掛艾人
창포 술 한 항아리 마주 앉으니 / 靜對菖蒲一尊酒
난초 물가에 홀로 깨었던 신하가 우습구나 / 笑他蘭渚獨酷臣

단오날 우연히 읊음 (端午偶吟)

운곡 원천석

신라에서는 이 날을 수리(車)라 불렀는데 / 新羅是日號爲車
주군(州郡)마다 풍속이 한결 같지 않았다 / 州郡鄉風不一科
이 고을에선 올해 들어 옛 풍속을 없앴으니 / 此邑今年除古格
왕가의 오랜 은택 그 여파가 끊어졌네 / 王家舊澤絕餘波

지난해 동루(東樓)에서 풍악 볼 적엔 / 去年看樂郡東樓
관리들의 술자리가 어지러웠지 / 官席杯盤散不收
오늘 이 집 문에는 사람 발자취 적막하니 / 今日此門人寂寞
정 머금고 괴롭게 정(鄭) 오두(遨頭)를 생각하네 / 含情苦憶鄭遨頭

천중가절(天中佳節)이 바로 오늘 아침인데 / 天中令節是今朝
어느 곳 누대(樓臺)이고 모두 쓸쓸하네 / 何處樓臺有寂寥
홀로 쑥 사람을 마주해 한바탕 웃노라니 / 獨對艾翁成一笑
문 지키는 효험을 칭찬할 만하네 / 守門功效可能饒

새 법에 따라 고을 백성들을 보살피려는데 / 欲從新法保民區

노여움 풀 훈훈한 바람은 없나 / 且問熏風解慍無
놀음에서 이미 누른빛 일산(日傘)을 금하니 / 呈戲已禁黃色盖
난리를 피하려면 으레 적령부(赤靈符)를 차야 하리라 / 避兵宜佩赤靈符

모두 난초를 차고 술항아리를 가져오는데 / 攄持蓀佩酒壺來
창포 김치 짙은 향내가 술잔에 가득하네 / 菖歟濃香自滿杯
지금부터 이 좋은 철을 저버리지 않으리니 / 從此良辰不辜負
술에 취하자 호연(浩然)한 시흥(詩興)을 달랠 길이 없네 / 倚酣詩興浩難裁

단오(端午)

목은 이색

금년의 단오절은 천시가 매우 좋은데 / 今年端午好天時
천애의 노모 위해 멀리서 걱정이 되네 / 老母天涯費遠思
쑥잎으론 인형 만들어 문 위에 올리고 / 艾葉扶翁上瓊戶
창포꽃은 술거품에 섞여 금잔에 드누나 / 菖花和蟻入金卮
눈은 좋은 명절에 놀라나 내 나라가 아니요 / 眼驚佳節非吾土
몸은 뜬 이름에 참여하여 색실을 매었네 / 身與浮名繫綵絲
생각건대 고향 산천 내가 놀던 곳에는 / 想得家山游戲處
그넷줄이 반공중 석양 아래 드리웠으리 / 鞦韆斜影半空垂

단오(端午)

도은 이승인

오후의 지관에 오월의 바람 살랑살랑 / 五侯池館暑風微
현란한 그네뛰기 줄과 함께 공중으로 / 撩亂鞦韆綵索飛
비단 부채 비단 적삼 그래도 부끄러워 / 紈扇羅衫也羞澁
녹음 깊은 곳 부러 찾아 서성거린다오 / 綠陰深處故依依

단오(端午)

사가정 서거정

금년에 또 단오절을 만났어라 / 今年又端午
이날이 바로 좋은 때이라서 / 此日即良辰
잔에 가득한 것은 오직 창포주요 / 滿罍唯菖酒
문 위에 걸린 것은 애인이구려 / 當門有艾人
모시옷은 가는 곳마다 편안하고 / 紵衣行處軟
합죽선은 하사받은 게 새롭구나 / 竹扇賜來新
성상계 강심경을 올리고 싶어라 / 欲進江心鏡
내 지금 간관으로 있으니 말일세 / 吾今忝諫臣

재차 손자 주석(疇錫)의 단오절 운을 차하다.

우암 송시열

백발의 외로운 신하 이 섬 속에 있지만 / 白首孤臣此島中
어찌 길 막혔다 방광하며 울겠는가 / 何須放曠哭途窮
대밭에 바람 이니 물소리 멀고 / 風鳴竹塢泉聲遠
산성에 달 비치니 바다도 백색이네 / 月出山城海色空
상상견대 초강 사람 다투어 건너련만 / 緬想楚江人競渡
가엾구나 고향 소식 통할 길 없네 / 遙憐鄉國信難通
배회하며 평소의 뜻 생각하니 / 徘徊永念平生志
아홉 번 죽은들 어찌 충효를 잊으리오 / 九死寧忘孝與忠

단양일(端陽日)

교산 허균

단양의 좋은 계절 이야말로 천중절(天中節)이라 / 端陽令節是天中
쑥잎에다 창포꽃을 임금에게 올린다고 / 艾蒲蒲花薦紫宮

이역의 나그네는 정서조차 메마르니 / 客在異鄉懽緒少
그림 난간 동쪽에 그넛줄만 걸려 있네 / 秋千虛搭畫欄東

궁사(宮詞)

교산 허균

저녁이자 등롱이 전대에 비추니 / 當夕燈籠映殿臺
상서 맛이 다투어 자하배를 올리누나 / 延祥爭進紫霞杯
모든 방문 닫아라 사리를 감췄으니 / 諸房門閉藏絲履
한밤중에 여원 귀신 들어올까 두려워서 / 恐有中宵瘡魅來

해일이 지나가고 자일이 어두워지니 / 亥日纔過子日曛
궁녀들은 대궐 앞에 구름처럼 늘어섰네 / 殿前宮女立如雲
밤새도록 켜붙을 여러 원에 살라대니 / 連宵藁火燒諸苑
돼지 주둥이 지저대고 쥐 주둥이도 지저대네 / 猥喙熏來鼠喙熏

봄을 맞는 방자는 은화로 첩을 지어 / 延春榜子帖銀花
세 궁에 올리고서 좋은 날을 축하하네 / 持獻三宮其拜嘉
인승이랑 채번을 재단하여 이루어지자 / 人勝彩幡初剪出
자의를 시신 집에 나누어 보내누나 / 紫衣分送侍臣家

오색 구름 서린 끝에 아침 햇빛 찬란해라 / 朝暎晃朗喬雲端
인일이 맑고 밝아 양전이 즐겨하네 / 人日清明兩殿歡
새벽부터 반궁에선 선비를 고교(考校)하니 / 拂曉泮宮方校士
중관을 친히 보내 황봉을 내리누나 / 黃封宣賜遣中官

초벽이 너울너울 이삭 줄기 엮혔는데 / 椒壁離離綴穗莖
요화로 옛 만들어 토우를 제사하네 / 土牛初祭蓼花飴
시녀들이 다투어 전 앞에 모여들어 / 殿前侍女爭來集
금년에는 곡일이 맑다고 축하하누나 / 共賀今年穀日晴

내주에선 모처럼 향반을 쪄내어 / 香飯初蒸出內廚

상원이라 대보름 못 까마귀 먹여주네 / 上元佳節飼群鳥
전망에 해 오르자 앞다투어 바라보니 / 殿臺日射人爭看
기왓골 여기저기 하얀 밥알 깔려 있네 / 駕瓦離離白粒鋪

새벽중 갓 들려라 운려가 열리나니 / 曉鍾纔徹啟雲廬
오늘 아침 어느덧 이월이라 초하를세 / 驚覺今晨二月初
취충을 없애자고 연례행사 시행하니 / 要除臭蟲行舊事
궁앞 뜰에 솔잎을 여기저기 깔았구려 / 亂鋪松葉殿前除

궁중이라 한식날 연기 아니 금하는데 / 寒食宮中不禁煙
상림원(上林苑)의 쪽잎은 새파랗게 우거졌네 / 上林艾葉欲芊綿
궁 사람 캐고 캐어 소매품에 가득 차니 / 宮人採摘盈懷袖
흰 가루로 전 만들어 어전에 올리누나 / 煎作霜糕薦御前

청명이라 개수는 병랑에 소속되니 / 清明改燧屬兵郎
문당에게 전해주어 건장으로 들어가네 / 傳授門璫入建章
유화는 하 새롭고 괴화는 갓 고우니 / 榆火正新槐火嫩
세 전에 분산하고 여러 방에 미치누나 / 散分三殿及諸房

금중이라 삼월 삼짇 좋은 철을 만나 하니 / 禁中佳節值三三
여러 전의 궁아들은 얇은 옷을 입어보네 / 諸殿宮娥試薄衫
상림원을 향해 가서 다투어 투초하니 / 爭向上林來鬪草
그 중에도 맨 먼저 의남초(宜男草)를 취하누나 / 就中先取翠宜男

상도화(緗桃花) 비끼어라 벽도화(碧桃花) 중얼중얼 / 緗桃斜映碧桃開
백엽의 해당(海棠)에다 옥매도 끼었구려 / 百葉玫瑰間玉梅
푸른 등자(凳子) 붉은 분이 전폐에 널렸으니 / 靑凳紫盆羅殿陞
오늘은 상림에서 꽃을 진상해 오네 / 上林今日進花來

한낮이자 회랑에선 죽림을 걷었어라 / 日午回廊卷竹簾
푸른 뽕잎 따고 따서 광주리에 가득 찼네 / 靑靑桑葉摘盈籃
궁인들이 대궐 아래 앞을 다뒹 와 바치니 / 宮人殿下爭來獻
첫잠 잔 팔잠에게 밥을 주라 명하누나 / 命餒初眠八繭蠶

귀인이 처음으로 얹은 깃옷 떨쳐 입고 / 貴人初試薄羅衣
홍도화 꺾어든 채 전 문에 기대었네 / 手折紅挑倚殿扉
해가 늦은 두청에 공사가 끝이 나니 / 日晚頭廳公事畢
성상께선 술을 따라 가는 봄을 전송하네 / 聖君斟酒送春歸

방거랑 닫는 말은 양대에 걸렸어라 / 紡車走馬掛涼臺
사월 과일 관등하러 양전이 납시었네 / 八月觀燈兩殿來
명년에 하느님이 복 내릴까 점을 치며 / 暗卜明年天降嘏
나인들은 다투어 옥충의 재를 보네 / 內人爭看玉蟲灰

돌 분의 맑은 물을 여관들이 끌고 나와 / 女官提出石盆湯
새벽같이 어전에서 꽃잎을 적셔주네 / 趁曉澆花御座傍
옥색의 여미향은 하마 벌써 눈 같으니 / 玉色醺醺香已雪
전의 서쪽 해돋이에 요황을 감상하네 / 殿西初日賞姚黃

천중이라 함문 앞에 상첩이 붙었는데 / 天中祥帖閣門前
창포주(菖蒲酒) 잔에 가득 애호도 달려 있네 / 蒲酒盈觴艾虎懸
몰래 어원을 향해 여반을 불러내어 / 偷向御園招女伴
푸른 괴수(槐樹) 그늘 속에 추천을 시험하네 / 綠槐陰裏試秋千

단오날 대내에서 채선을 내리는데 / 綵扇端陽內賜時
은대와 경악에서 은혜 가장 많이 입네 / 銀臺經幄最恩私
바람 머금은 그 부채 봉안에다 백동(白銅) 고리 / 含風鳳眼銅環筵
관가가 아니고선 가질 수 없는 거지 / 不是官家不得持

삼복이라 궁중 단장 부환을 제거하고 / 三伏宮粧去副鬢
잠방이 차림 서합에 빙산을 첩지었네 / 衩衣西閣疊冰山
채운 수박 담근 오얏 더위 한창 식히는데 / 割苾沈李方蠲熱
궁감이 문득 와서 만반을 재촉하네 / 宮監俄來促晚班

보릿고개

서정주

사월 초파일 뻬꼭새 새로 울어
물든 청보리
깍인 水晶같이 마른 네 몸에
오슬한 비취의 그리메를 드리우더니

어느만큼 갔느냐, 굶주리어 간 아이.

오월 端午는
네 발바닥 빗깔로 보리는 익어
우리 가슴마다 그 까슬한 가시라기를 비비는데

뻬꼭새 소리도 고추장 다 되어
창자에 배는데.....
문드러진 손톱 발톱 끝까지
얼얼히 배는데.....

端午 노래

서정주

오월이라 단오날에 수리치 떡은
해보단도 더 뜨거워 혼자 못 먹네.
오라버니 오라버니 젓가락 줄까
잘 붙어서 씹어 삼켜 먹어야 하네.
단군님의 자손이라며 요게 무언가
글쎄?
세 쌍둥이라도 날 만한 힘 어따 두고.....

오월이라 단오날에 요놈의 살림
고추보단 더 매워서 혼자 못 먹네.
오라버니 오라버니 막걸리 줄까

홀짝 홀짝 마시면서 먹어야 하네.
단군님의 자손이라며 요게 무언가
글쎄?
세 쌍둥이라도 날 만한 힘 어따 두고....

春香 遺文- 春香의 말 參

서정주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오월 단오날, 처음 만나든날
우리 둘이서 그늘밑에 서있든
그 무성하고 푸르든 나무같이
늘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마 아닐것입니다.

천길 땅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드래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예요?

더구나 그 구름이 쏘내기되야 퍼부을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거예요!

단오

이수익

음 오월에도 초닷새 수릿날엔
아내여, 그대는 춘향이가 되라.
그러면 나는 먼 숲에 숨어들어 그대를 바라보는
이 도령이 되리라.

창포를 물에 풀어 머리를 감고
그대는 열일곱, 그 나이쯤이 되어
버들가지엔 두 가닥 그냘줄을 매어
그대 그리움을 힘껏 뺏아 하늘로 오르면,
나도 오늘밤엔 그대에게
오래도록 긴 긴 편지를 쓰리라.

하늘로 솟구쳤다 초여름 서늘한 흰 구름만 보고
숨어 섰던 날 보지 못한 그대의 안타까움을
내가 아노라고.....
그대 잠든 꿈길 위에 부치리라.

高山歌 3

윤후명

꽃다운 처자의 눈엔 선봉(仙峰)이 들고
하늘을 피나리붓짐에 진 선봉이 들고
빈 방도 많을 타관의 불빛
선봉을 낭군의 말씀으로 비추인다
못 먹어도 머릿단은 아침마다 길어
꽃정이 아니게 한다
꽃보리 같은 정을 두고

봉 넘어 가신 낭군은
타관의 불빛에 수신(瘦身)을 누이리
긴 밤 흰 눈물
선봉에 차 넘치고
녹슨 단도에 비취 보는 얼굴
차갑게 여울져
길게 차가와라

강릉 가는 길

윤후명

삶을 이어가기에는 감자가 아리고
사랑을 나누기에는 물고기가 비리고
죽음을 이루기에는
산과 바다가 죽음보다 길쭉하여
그리운 사람들 모두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고 싶던 날이 있었다
뒷산 호랑이가 나무 되어 걸어내려와
처녀 데려다 살았다는 옛곳
옥수수 수염 같은 고향길
그렇건만
삶과 죽음이 새삼 서로 몸을 바꿔
사랑을 더듬는 모습 속에
더욱 알 길 아득하여
어디인가 어디인가
어디인가 멀뚱거리기만 하였다

남대천(南大川)에 가면

박용재

내가 살던 남대천에 가면
안개가 허리를 낮추고
감자밭 속으로 지나가는 것을
내가 놀던 남대천에 가면
물풀들이 지체없이 바다로 흐르는 것을
내가 죽던 남대천에 가면
무심코 별을 헤던 청년 하나가
울며 지나는 저녁을 만난다.
단오날이면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의 께죄죄한 가난이
자갈밭에 모여 서로 숨을 나누는 것을
내가 울던 남대천에 가면 만난다.
새벽이면 도립병원에서 흘러나온
낙태된 어린 시체들이 어김없이
강바닥을 훑으며 지나가는 물소리를
내가 울던 남대천에 가면
시시한 풀들이 온몸으로 흐느끼는 소리를
하늘을 버리고 물 속으로 날아가는
새들의 처참한 일생을 만난다.
내가 은희와 키스하던 남대천에 가면.

노래의 얼굴

이홍섭

전국 제일이라는
오월 닷새 강릉단오 며칠 앞두고
미리 모여든 서커스단 난쟁이 광대들

그 너른 남대천변에서
자기보다 큰 공을 굴리며 노래하고, 춤추곤 했는데
그 가락이며, 춤사위며, 분 없는 얼굴은
사람 많은 단옷날에는 볼 수 없는 것이라

그 가락이며, 춤사위며, 서러운 표정은
저물녘 강물처럼
가슴속으로 참 많기도 지나가곤 했는데

늦은 밤, 나보다 큰 것만 같은 울음 앞에서
제 곡조를 찾지 못할 때
그 서러운 표정이 어느덧 노래가 되고, 춤이 될 줄이야
되어서 저물녘 강물처럼 반짝이며 흐를 줄이야

단오별곡

심은섭

누이와 나는
강뚝에 앉아 난장을 바라다보는 것이 좋았다
그네뛰기, 씨름
창포머리 감기, 관노가면극
옛장수 가위질은 기타소리보다 더 아름다웠다

누이와 나는
들고양이처럼 난장을 바라다보는 것이 좋았다
말을 잃어버리고
넋을 잃어버리고
난장을 바라다보는 것이 한 없이 기쁜 일이었다

누이와 내가
연어 떼가 돌아오지 않는 남대천 강변을 거닐며

말을 잃어버렸을 때
넋을 잃어버렸을 때
누이의 머리카락 속에 꼭꼭 숨는 단오를 보았다

누이와 나는
매양 수양버드나무 아래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무녀의 눈빛을 읽으며
신목의 떨림을 들으며
유년이 잘려나가는 눈이 큰 들고양이가 되었다

범일국사

이광식

마을의 서쪽으로 나있는 큰 재, 즉 대관령과 남쪽에 뚫려 있는 밤재터널, 그리고 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명고개와 임영관, 객사문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기 훨씬 이전에 이 마을을 온통 휩쓴 노래가 있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마을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의 한 구절을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노래는 재즈와 팝이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잿어대는 요즈음의 거리 어디에서든 들을 수 없는 노래이다. 다만 이 마을에서 해마다 벌어지는 단양제 때에만 무격들에 의해서 불리어지며,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멍하게 있다가 깜짝 놀라 자신들의 천 년 전의 조상을 숭배하는 절을 신주와 시주를 올리는 것과 함께 대성황에다가 굽어대는 것이었다.

연꽃이 좋아 하여도 연못 안에 늘어지고요
버들 꽃이가 좋다 해도 눈비 맞아서 부러지고
해바라기 좋다 해도 해를 안고야 돌아가고
영산화야 백일홍야 팔월부중 군자동아
만단 추수 홍영아.

대관령 국사 성황님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부르는 민요창 비슷한 이 무가가 불리어지면 촌노들은 굿판에 나가서 춤을 추고 한바탕 즐겁게 노니는 것이었다. 그러면 신성하고 두렵던 굿판을 어느새 주민들의 놀이마당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모시고 숭배하는 성황신은 누구인가? 반도의 대간인 태백산맥의 준령을 넘어 동해변에 너부죽이 펼쳐져 있는 이 마을 영동지방. 이 영동지방 신인 영험한 국사 나라 당산 성황님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길래 그를 즐겁게 해 주려고 지방민들이 이 지방에 만발한 연산홍에 빙의해 이처럼 우아한 노래를 부르는가? 이와 같은 의문은 가져볼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그 성황신의 위대한 행적을 추적하기 위하여 천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신라 말기에 가까운 그 시절에는 아직 국경 분쟁으로 시끄러운 때는 아니었다. 몇 년

전 온 나라에 큰 가뭄이 들고 왕의 숙부 언승과 그 동생이 장병을 궁궐에 들여와 왕을 시해하고 죽은 왕을 애장왕이라 추시했다. 그러구선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그가 후에 현덕왕이라 불리는 군주였다. 이때에 이 지방 북쪽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결과부터 미리 말해두면 바로 이 아이가 이 마을 성황신이 되는 범일국사인 것이다.

그의 어머니가 되는 문(文) 씨 처녀가 그날 깨어난 시간은 사경 말미, 미명의 아침을 학의 날개 짓 소리에 깨어났다. 몸이 떨려왔다. 춘정월이어서 아직 한기가 몸속을 비집고 들어왔다. 봉창 너머로 어스름한 빛이 새어 들어왔으나 밖은 검은 밤의 그림자를 놓치려 하지 않는 듯했다. 문 처녀는 이불을 개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상도 하지. 그런 일이...’

그러면서 미닫이를 열고 마당가 담장 너머로 시선을 놓았다. 새벽꿈에 떠오른 거대한 해를 찾기라도 하는 듯이 소나무 사이로 가늘게 퍼져 나아가는 새벽을 건져내려 했다. 소나무가 바람에 쏘아 하고 속삭이며 아침을 물고는 담 너머로 달려왔다. 문 처녀는 옷깃을 여며 웃고름을 다시 매고는 툇마루로 나섰다. 밤새 외로움에 떨다가 문득 잠들었는데, 검은 것보다 더 영원한 것이 없으므로 이 긴 밤이 이대로 그냥 멈춰져서 내 괴로움과 고독이 화석이 되어 버렸으면 좋으련만 하고 생각하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새 꿈을 꾸었던 것이다. 학의 날개 짓 소리에 퍼득 깨어나서는 미명의 아침을 맞자 그만 잠시 전에 꾸 꿈이 현실처럼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다. 꿈속의 일들이 금방 누에 보일 듯했다. 눈이 부셔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기도 했다.

꿈속에서도 문 처녀는 깨끗한 차림새였다. 누대에 걸쳐 이 동리에 살면서 엽호문으로 문벌을 자랑하는 집안의 아녀자로서의 법도를 잃지 않고 있었다. 꿈속에서 나타난 자신의 모습은 동리 사람들이 칭송해 주는 바 그대로였다. 흰옷을 입고 있었단가? 그래, 장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가히 부범이 된다고 말하고들 있으나 자신은 그런 말들에 현혹되어 지나친 행동은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꿈에 나타난 자신은 생시의 그대로였다. 그런데, 늘 물 길러 다니던 샘터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샘 옆에는 바위가 있었는데 동리사람들은 그 바위를 학바위라 불렀다. 문 처녀는 한 번도 그 바위 위에 올라가 본적이 없었다. 일찍 그 곳에 들어서 소나무 사이로 새벽샘물을 동시에 담아 이고 올 즈음이면 예외 없이 위에서 억센 사내의 목청에서 솟아나는 청아한 소리가 들려 왔었다. 꿈속에서는 그 사내가 보이거나 그의 힘찬 맑은 소리가 들려오지는 않았었다.

지금처럼 생시 그대로 문 처녀가 툇마루에서 내려서 땅총배기의 신총에 발가락을 꿰고 마당을 가로 질러 빈 동이를 이고서 대문을 나섰다. 꿈속에선 땅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을 걸어가듯 몸이 가벼웠다. 두둥실 떠서 어느덧 샘터에 다다랐다. 샘은 아침 하얀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다. 표주박을 떠서 그 물을 한 모금 시원히 마셨

더니, 전신에 짜릿한 쾌감이 퍼져 나아갔다. 그때였다. 청솔가지 사이로 커다란 해가 떠오르지 않는가. 그 해는 크고 붉게 타오르고 있었으나 뜨겁지 않았고 먼 곳에 있지도 않았다. 바로 머리 위에서 불타고 있었다. 마치 큰 계란의 노른자 모양 둘레가 붉고 노랗게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해를 놀라 바라보며 문 처녀는 벌렁 뒤로 넘어졌다. 부끄럽게도 치마가 펄럭이며 고쟁이를 내비치게 했다. 그러나 부끄러워할 사이도 없었다. 둥글게 타오르던 해가 갑자기 문 처녀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문 처녀는 일어나면서 엉겁결에 해를 안았다. 그건 그러려한 것이 아니라 해가 그녀의 가슴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었다. 문 처녀는 그 해를 한 아름 안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해는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해를 받들고 있는 자신의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부정하게도 하초가 뜨뜻했다. 문 처녀는 그만 얼굴이 달호여서 손으로 받쳐든 해를 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아랫도리가 후들거리고 갑자기 요기가 왔다. 문 처녀는 서 있을 수 없어서 조심스레 앉았다. 상서로운 기운이 사방에 넘쳐 문 처녀는 구름 속에서 해를 받들고 있는 신선이 된 듯 느꼈다. 그리고 정신이 몽롱해져 갔다. 학의 나래짓 소리가 들린 것은 그 무렵이었다. 몸을 뒤지고 놀라 깨었다. 꿈이었다.

‘이상도 하지. 이런 꿈이…….’

문 처녀는 방금 전의 꿈을 생생히 떠올리며 물동이를 이고 샘터로 갔다. 꿈속에서 달아오르던 하초를 생각하고는 남 볼까 얼굴을 돌려 소나무 사이를 일별했다. 아무도 깨어나 그 시간에 그 곳에 올 사람이 없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지 않았느냐. 해 덩이가 가슴에 안겨 올 땐 그만 비명이라도 질러야 했는데... 그랬다면, 비명을 질렀다면, 그건 아마도 환성이거나 탄성이었으리라. 아니면 환희에 넘치고 염정 넘친 기성이거나 할 것이었다. 또 뜨끈한 것이 가슴에서 아랫배 쪽으로 물려가는 것을 느꼈다. 문 처녀는 무엇에 놀라기도 한 것처럼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이런 마음으로는 정안수를 뜯들 아무 효험도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부정을 탄 그 마음으로 무엇을 기원할 텐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잠시 서 있는 사이에 해가 훨씬 산꼭대기로 가까워져서 이제 막 동산 위로 얼굴을 내밀려 하고 있었다. 머리를 흔들고 이번에는 쟈 걸음으로 다시 샘터로 다가갔다.

정월 찬바람이 샘터를 감싸고 있었으나 문 처녀는 춥지 않았다. 평상시 보다 늦은 시각이었다. 이미 오경을 훨씬 지나고 있었다. 문 처녀는 샘물을 내려다보며 바가지로 물을 뜨려 했다. 그러다가 그만 깜짝 놀랐다. 어찌나 놀랐는지 꿈속에서처럼 뒤로 벌렁 넘어졌다. 그 물 속에는 방금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해가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냐. 문 처녀가 들고 있던 바가지가 떨어져 저만치 굴러갔다. 정신이 몽롱해져갔다. 다시 꿈속처럼 아랫도리가 뜨뜻해왔다. 그러나 그만 문 처녀는 까무룩 기색해 갔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때, 문 처

너가 물을 길으러 할 때, 떠 있던 것이 해였다는 사실에는 이론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 해를 문쳐 너가 바가지로 떠서 마셨다는 설과 그 해가 문 처녀의 수문으로 들어갔다는 설이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단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천 년이나 오래 전 이야기이고 마을 사람들이 그들이 어렸을 때 들은 것이어서 무엇이래 단정할 수 없었다. 바람이 불고 흙이 깎이어 가고 석천이 거의 말라가고 사람도 변해갔다. 그것에 따라 이야기도 조금씩 변해가서 이제는 신화로 되었다가 전설도 되었다가 한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무엇이였는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다만 지금도 명주군 구정면 학산리에는 그 학바위가 있으며 동리 어린이들은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또는 짓곳은 동네 청년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을 따름이었다. 동네 청년들은 조무래기 아이들을 학바위 뒤 소나무 등걸에 모아 놓고는 이야기할 것이었다.

‘내 얘기가 맞다 이 말씀이야. 느네 할배 말은 중요한 것은 싹 빼버렸단 말씀이야. 그 문 처녀가 하는 여식아가 낭중에 즈그 부모께로 말씀 올릴 때 말씀이야, 평소에는 맞춰 둔 총객 얘기는 싹 빼뿌렸다 요런 말씀이야. 해를 먹었다고야? 아니, 해가 옥문으로 들어갔다고?’

‘서엉! 옥문이 뭐냐?’

‘야, 이 짜숙아야. 옥문이 뭐냐구? 하, 그놈 허군. 임마야 옥문이 어디냐구? 임마, 그러니까 고거는... 그래, 고거는 오줌 누는 곳 아닝가! 히히, 그리루 들어갔다, 이 말씀인데 그게 이상타 이 말씀이야. 해를 으뜨게 먹고 해가 으떠게 들어가냐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웬 총객이 있었고 둘이서 이 소나무 숲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내 말씀이야. 바로 여갠지도 모르지. 저 갠지도. 아이야라, 바루 니가 앉아 있는 여갠지도, 게서 홀레했는지도 모르지! 무슨 말인지 알아 잡쨌나?’

그러면서 그들은 킬킬대고, 밀며, 잡아당기며, 뒹굴며, 공중제비하며... 그리고선 그 이야기는 싹 잊어버리고 다시 그들이 늙어서는 해 이야기를 자신의 손자에게 점잖게 말 해주었을 터였다.

다시 돌아가자, 문 처녀가 혼미한 정신 속에서 다시 깨어났을 때는 해가 떠 오른 지 한식경이 흐른 다음이었다. 온 몸이 뽁뽁 얼어 있었다. 치마가 훌렁 벗겨져 얼굴을 덮고 있었다. 허벅지가 얼얼해 왔고 아랫배가 팽팽히 당겨져 왔다. 정신을 차리자 사방을 휘둘러 봤다. 사람의 그림자라곤 없었다. 어느새 자신은 학바위 뒤 소나무 등걸을 베고 누워 있음을 알았다. 어디선가 억센 사내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다. 청아한 목소리의 남정네가 방금 저쪽 바위 뒤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정신이 들자마자 문 처녀는 얼른 일어나 옷을 매만지고 머리를 쓸어 넘겼다. 땀아리 끝을 물고 집으로 내려오는 길은 정황이 없었다. 물이 떨어져 옷이 젖었는지 자꾸만 걸기적거렸다.

방안에 들어와 앉은 문 처녀는 꿈과 현실이 뒤섞여 착종감을 일으키는 아침의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알 수 없었다. 누구에게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어
서 누구든 자기를 이해해 주려고도 않을 것이었다. 무엇에 홀린 듯 몸뚱어리가 나른한
가운데에 차라리 무심한 상태로 아직 녹지 않은 담 밑의 눈 무덤만 바라보고 있었다.
수런거리며 영산홍 앙상한 가지 사이로 불의 김새가 느껴지는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
았다. 저쪽 학바위계로 시선을 주면서 선향이 퍼덕이며 비상하는 소리를 음미했다. 푸드
득, 학 한 마리가 날아갔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다.

사람들은 태어날 아기 범일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아니, 원래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있었는지 아닌지도 알고 있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는 그의 이름이 사라져버려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존재조차 거론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아비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는가. 그날 해가 문 처녀를 범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 해가 입속으
로 들어갔는지 수문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것이 해인지 해 아닌 다른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도, 지금 사람들, 특히 문예에 관심이 많은 식자들과 마을의 유지들은 그
해가 단순한 해가 아닐 것이란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알고리즘으
로 규정짓고 있는 것이었다. 그 때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것은 성행위 그 자체
의 메타포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견해이다. 그렇다면 문 처녀와 만나 성희를 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사람들은 문 처녀에게 태어난 아이의 조부를 김술원이라고 했다. 그러니
범위가 범일인 그 아이의 속성은 김 씨임이 분명하다.

구전되는 이야기에 충실하게 더듬어보면, 문 처녀는 석천에 물을 길러 갔다가 유난히
비치는 햇빛에 무심히 그 물을 떠먹은 그달부터 경도가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문
처녀는 부끄러운 몸을 세상에 내놓지 않으려고 그달부터 바깥출입을 금했다. 집안에서
도 가문에 먹칠할 일이 발생되었음에 참피하여 입들을 굳게 다물었다. 집안 어른들은
문 처녀의 몸에 아이를 잉태시킨 작자가 누구인지 비밀리에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학산마을 서쪽 산 아래에는 새로운 사찰을 건립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
었다. 지금은 전답과 대지로 변해 버렸지만 처음 그 절이 지어질 때에는 그 규모에 있
어서 미증유의 대역사였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우마차에 실려 오는 목재나 석재의 그
수량의 막대함에 열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산이 깎여지고 나무가 베여지고 주춧돌이
300 개나 박혀갔다. 대충 가늠해 보아도 50만 평이 족히 뒹직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 절을 짓기 위해 당시에 명주도독으로 재임하고 있는 김술원이 직접 다녀갔다는 사실
이었다. 그러나 문 씨 집안에선 김 도독 그 자신보다 그의 아들에 주의를 기울였다. 수
려한 용모와 담대한 행동거지와 물 흐르듯 하는 그의 언변에 모두가 경탄을 금하지 못
했다. 문 씨 문중에서는 그 사찰을 건립하는 일에 총감독으로 임명된 젊은 김 총각의

행동거지를 예의 주시했다.

아버지 김 도독이 정사를 보러 마을로 내려갔지만, 김 총각은 함께 내려가지 않고 학산 마을에 남았다. 사찰 건립에 관한 모든 일을 혼자서 도맡아 했다. 김 총각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학산 마을을 한바퀴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하루 일을 시작했다. 김 총각은 빼어난 자연 경관에 감탄했다. 서쪽으로 보이는 산의 모양이 토성으로 풍후해서 이곳은 부귀한 사람이 태어날 곳만 같았다. 많은 학이 날아와 보금자리로 삼을 만했다.

그 날 김 총각은 마을의 외곽을 돌아 사찰 아래에 있는 학바위에 올라섰다. 안개가 떠올라 마을은 희뿌연 연과 속에서 아침을 깨어나고 있었다. 김 총각이 학바위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만 몸을 그 자리에 굳혔다. 김 총각은 학바위 바로 아래에 있는 석천에서 누군가 물을 뜨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것은 차라리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같이 보이기도 했고 아마도 <헌화가>란 노래와 인연이 깊은 수로 부인이 살아 있다면 그럴 것이라 생각 드는 신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런 깨끗하고 고적한 곳에서 보는 아름다운 여인이 이곳에 살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몰랐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몸을 숨기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흰 치마폭 안에 감긴 몸매의 윤곽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뒷모습에 뚜렷이 배어 나왔다. 물동이를 잡은 팔 밑으로 조금 내비치는 속살의 그 백옥 같은 눈부심에 숨을 멈추었다. 김 총각은 문 처녀가 사라진 소나무 숲 사이의 오솔길을 끝없이 바라보며 아쉬움이 젖었다. 정신을 차리자 긴 한숨이 튀어 나왔다. 김 총각은 한 마디 큰소 리를 뽑아냈다.

“부처님이여, 내 마음 알아주오.”

그 소리는 청아하게 맑은 아침 공기 속으로 널리 퍼져 나아갔다.

그날을 김 총각은 얼마나 기다렸던가. 꿈속에 나타나 보이면 물 길는 처녀가 자신에게 다가와 웃고름을 풀고 미소 짓던 그 하얀 치아. 잡으려고 허위적거렸으나 잡히지 않던 안타까움. 그녀의 손끝을 잡았다고 생각했을 땐 그녀는 이미 학의 등에 타고 솔바람처럼 사라지지 않던가. 서운하고 아쉬운 애태움에서 깨어났을 때는 평상시 보다 조금 늦은 시각에 나타난 그녀가 햇빛에 반사된 샘물 위의 빛살에 눈이 부셔할 때 바람보다 빠르게 그녀를 안고 소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그 처녀는 그 순간 정신을 잃고 말았다. 김 총각은 소나무 등걸 아래에 그녀를 곱게 눕히고 남몰래 품고 있던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아, 이토록 놀라운 여체라니!

세월이 물처럼 간단없이 흘러갔다. 문 처녀가 세상 밖에 나오지 않은지 열세 삭 만에 아이가 태어났다. 일설에는 열네 달이라고도 한다. 옥동자였다. 때는 신라 헌덕왕 3년 서력 810년 춘 정월이었다.

그때까지 아비가 누군지 몰랐던 문 씨 집안 어른들은 이 아이의 탄생을 부끄러워하여 그날 어스름 달빛이 소나무 사이를 비칠 때 강보에 싸인 아이를 학바위계로 가져갔다.

상서롭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집안사람 누구도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집안 어른들은 학바위 아래에다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아이를 놓아두었다.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 처녀는 열석 달 내내 자기의 몸속에서 키워서 햇빛을 보게 한 아이에 대한 본능적, 모성적 사랑 때문에 밤새 울었다. 밤새도록 사랑 밖에선 집안사람들의 두런두런하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누군지는 알아야 재! 어느 녀석의 짓거리 인지는 알아 두어야재! 그 여식아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애비 없는 자식이 워데 있나? 바보 같은 녀석! 다들 조심허구 눈 꼬리를 늦추지 마라!’ 이런 말들이 들려왔다.

해 때문이다. 그 해, 그 햇빛, 그 햇살이야. 그것 때문이야! 문 처녀는 속으로 외쳐 보았다. 그러고선 다시 속으로 부르짖었다. 내 아이야, 내가 키울 내 아이야. 누군들 그 애를 어찌면 안 돼. 내 아이야! 문 처녀가 고통 끝에 다시 깨어났을 때는 옆자리에 아이가 없었다. 밤새 혼자서 울고 부르짖고 애태웠으나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다음날 아침 문중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 모두들 어쨌든 피 덩어리 아이의 시신은 걷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누구의 씨인지 몰라도 아이 에미가 저 방에서 웅크리고 있으니 그건 분명 문 씨 집안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란 소리들이었다. 밤새 산짐승이 잡아 갔는지도 모르나 하여간 한 번 가보기라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었다. 문 씨 집안사람들은 아침 일찍, 아직도 검은 안개가 햇빛을 받고 사라지기 전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마을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도록 발걸음을 죽이면서 학바위계로 다가갔다. 일설에는 문 씨 처녀가 갔다고 한다. 하얗진 달이 서산마루에 걸려 있었다. 먼 곳에선 닭의 해치는 소리와 개의 마른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문 씨 사람들은 조심조심 학바위 아래로 찾아갔다. 아직도 어둠 속인 바위 아래에 모두가 도착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곳엔 학이 여러 마리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찬 아침 기운이 어디론가 몰려가고 거기엔 화풍으로 따뜻한 서기가 서려 있었다. 그곳에서 선학들이 자기의 깃을 펴서는 아이를 감싸주고 있지 않은가! 문 씨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학들은 움직이려 하지도 날아가지도 않았다. 날개 속에서 아이가 놀랍게도 방실거리며 놀고 있었다. 날개 속에서 아이가 한 번씩 방긋거릴 때마다 녀석의 입속에선 향기가 피어 나왔다. 흰 수염을 흔들리며 문 씨 어른이 앞으로 나섰다. 휘여, 하며 학들을 날려 보내려고 옷소매를 펄럭였다. 학들은 그 큰 다리를 튕기고 날개를 활짝 펴더니 한 마리씩 아이로부터 떨어져 날아갔다. 선학 날개의 깃이 떨어져 한송이 꽃처럼 휘날렸다. 사람들이 아이에게로 갔다. 아이가 또 방긋 웃는다. 그 입속에서 사람들은 붉은 구슬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그건 구슬이 아니라 열매였다. 학이 물어다 아이의 입 속에 넣어 주었을 붉은 산열매, 단실이였다. 따뜻한 기운 속에서 아이는

편안히 하룻밤 혹은 사흘 밤을 지냈음이 분명했다. 어미의 젖처럼 단실이 녀석의 배를 채워 주었음이 틀림없었다. 학들은 영물, 무엇이 학들로 하여금 아이를 감싸 보호하게 하였을까?

문 씨 어른들은 조금씩 두려워졌다. 부끄러운 아이를 내다 버리라고 목소리를 높인 천척 노인은 두려워 그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손바닥은 펴 이마에 대고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했다. 다른 사람들도 땅에 엎드렸다. 천지신명이여, 라고 하거나 부처님하거나 관세음보살님하거나, 삼신할미여, 하거나 옥황상제님이여, 라고 한마디씩 하면서 엎드려 떨고 있었다. 문 씨 어른이 일어나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여보게들, 이건 범상한 일이 아니어. 심상한 일이 아니란 말이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돼.”

문중 사람들에 의해 다시 데려와진 아이를 안은 문 씨 처녀는 아이의 영롱한 눈을 보며 잘 키우리라, 누가 네게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아이만은 훌륭하게 키우리라 다짐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가는 어느 날 새로 지어지는 대찰, 그 무렵에 그 큰 절이 굴산사라고 명명되었음이 알려졌다. 그 굴산사를 둘러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마을에 하루 묵어 가게 된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의 말이, 문 씨 집안에 새로 태어난 아이의 성은 김 씨이며, 그 아이의 할아버지는 놀랍게도 도둑 겸 평찰인 김술원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 소리를 들은 마을 끝에 사는 농사꾼인 젊은 남편은 문 씨 집에 뛰어와서 그런 사실을 알려주었다. 문 씨 어른이 놀라 함께 뛰어가 본 농사꾼 집에는 그 노인이 이미 떠나고 없었다.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그 마을에 그 소문이 퍼져 갔고 그 뒤로는 누구도 문 처녀와 그 집안에 대해 비방하는 사람이 없었다. 귀한 집안에 자손을 갖게 된 것을 문 씨 어른은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절의 창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젊고 준수한 김씨 총각을 떠올리며 문 처녀와 그 총각과의 학바위 석천가에서 있었을 아름다운 사랑을 상상해 보곤 하였다.

다시 부지런한 계절이 수없이 흘러갔다. 마을 옆 산에 지어가는 굴산사도 거의 완성되어 갔다. 아이가 15 세(혹은 9 세)가 되던 날, 굴산사의 범종소리를 들으며 자라던 아이가 아침 일찍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의 슬하에 무릎 꿇은 아이는 의외의 말을 어머니께 하는 것이었다.

“어머님, 아뢰올 말씀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 새별에 갈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한 후에 결정한 것입니다. 어머니께 미리 상의 말씀 올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오나 어머니, 이건 저의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저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 들어 집니다. 어머니, 집을 떠나 속세와 연을 끊으려 하는 생각이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시고 허락하여 주소서.”

어머니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사실 어머니도 아들의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어떤 전생의 업이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던 터였다. 허락하고 말 것도 없는 듯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다만 건강하게 살아가고 어디에 있든 외롭게 이 에미가 이곳에 살아 있다는 사실만 잊지 말라 당부하고 어미는 아들을 떠나보냈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얼마 동안 그 아이의 행적에 관해 들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아이도 깊은 사색과 생에 대한 고뇌와 그리움과 고독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알차게 키워 나아가고 있었다. 힘들고 외로운 세월이었으나 범상성을 넘는 무엇을 얻기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아이는 새별 생활을 힘들고 고독하게 이어갔다. 20 세가 되자 새별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그의 범위는 범일로 지어졌다.

범일은 흥덕왕(827-835) 때에 왕자인 김의종과 그렇게도 바라던 당나라에서 유학하게 되었다. 거기에 마조의 법사 염관제안대사에게서 6 년 동안 사사 받았으며, 약산에 이르러 약산 유엄대사와 교류하게 되었다. 문성왕 6년(서력 844)에 이르러 당에서 승려사태와 불우훼괴의 사변이 일어났다. 범일은 상산에 숨어들어 혼자서 선정을 하였다. 그 후 소주로 갔다가 귀국을 결심하게 되고, 드디어 문성왕 9년(서력 847) 추8월에 경주에 돌아왔다. 실로 오랜 기간 동안의 이방에서의 수련이었다.

범일은 고국에 돌아와 백달산에서 3 년 간 안좌하고 있던 중 어느 날 명주도독 김공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사자로부터 사찰을 받아 읽은 범일은 실로 감개가 무량했다. 그 글에서 김공은 '청천대 굴산사의 주지가 되어 주십시오.'라 적고 있었다. 이 어찌 마다할 수 있으랴. 거기가 어딘데, 내 고향.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할아버지는? 명주도독 김공이라? 누구인가?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리라. 범일은 그럴 것이라 믿었다. 벌써 40여 년이 지난 지금, 모두가 살아계실지도 의문일 만큼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였다. 범일은 굴산사로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여기서 이야기를 잠시 뒤로 돌릴까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범일이 강릉도독 김공의 초청에 의해 자신의 출생자이자 외가인 학산에 갔을 때의 그 저간의 사정을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그 김공이 누구냐 하는 점인데, 범일의 조부 김원술과 명주군왕 김주원과의 관계가 밝혀지기 전엔 어느 계통의 김 씨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김주원계의 김 씨냐 김술원계의 김 씨냐? 명주군왕과 강릉도독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던가? 이런 점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는 전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말이다. 원성왕 원년(785년)에 김주원이 강릉 군왕이 되고 그 25 년 뒤인 현덕왕 3년(810년)에 범일이 태어났으니, 그의 조부 김원술과 명주군왕 김주원은 동시대의

인물인 듯한데 확실히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해보면 별문제가 아니니, 굴산사의 융성은 두 계열의 김 씨의 결합된 힘의 후원에 말미암음이라 할 것임에 서다.

어떻든 세월은 김주원과 김술원의 전성 시절을 훨씬 지난 문성왕 13년(51년)이니, 그들이 살아 있었을까? 어느 계열의 사람이든 명주도독 김공의 적극적인 후원과 범일 자신의 종교적 소양에 기인하여 굴산사는 융성일로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공의 적극적인 후원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것과 범일국사와는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질 수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 본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잠시 과거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즉자인 사람이 당연히 왕위를 이어야지 어찌 경신이 왕이 된다는 말인가! 하며 분노해 보았다.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어 보았다. 주원은 하늘을 원망해 보기도 했다. 그 때, 왜 하필이면 그 때 그렇게 큰 비가 내렸다는 말인가. 서울 북쪽 이십 리 밖에 있던 자신의 집 앞서 내려다보던 알천 땅은 온통 물에 잠겨 있던 것이었다. 인군을 모시는 문제는 진실로 사람이 도모하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진실로 하늘은 김주원을 원치 않았단 말인가.

주원은 경신의 편적한 얼굴에 얹혀 있을 빛나는 왕관을 떠올리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파도가 심하게 쳤다. 금방이라도 자신과 자신의 뒤를 따르는 가솔들을 한 아름에 쓸어 담아 바다 속으로 쳐박을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바다로부터 그만 시선을 거두었다. 경신을 왕으로 정하자 비가 그쳤다고? 해괴한 이야기! 마음속으로 크게 소리쳐 보았다. 말 등에 올라탄 주원의 얼굴이 분노의 열정으로 경련이 일었다.

선덕대왕에게 잘못을 묻고 싶지는 않았지만 일을 벌써 선대 때부터 잘못되어가던 것이었다. 선덕대왕 원년에 이찬 경신을 상대등으로 배하하였었다. 그때부터인가? 일이 잘못되어 가는 중이었다. 그가 무엇이기에! 주원은 먼 산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생각을 떨쳐버리려 할수록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애착, 미련, 야망 그런 것들의 무망감과 열패감. 주원은 시자에게 일러 잠시 쉬기를 명했다. 그가 왕이 되다니. 조상님! 하며 입속으로 불려보았다. 주원은 태종대왕 조상님이여! 하고 불려도 보았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오히려 경신의 포만한 기쁨의 얼굴이었다. 경신이 길몽을 꾸었기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소문 따위는 애시 당초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주원에게 새삼 그 헛된 꿈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느 날 밤 경신의 꿈을 꾸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어 댔었다. 그 꿈 이야기는 이러했다.

경신은 사모를 벗고 갓을 쓰고 열두 줄 거문고를 끌어안고 천관사 우물로 떨어져 내리는 꿈에서 놀라 깨어났다. 삼경이었다. 그것은 악몽이었다. 경신은 그렇게 생각하며

땀에 젖은 몸을 세차게 흔들었다. 이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경신은 뒤숭숭한 심사를 겨우 가누며 사람을 시켜 점을 쳐 보았다. 그 점쟁이의 해몽에 경신은 그만 뉘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사모를 벗은 것은 실직할 징조고, 거문고를 안은 것은 형벌을 받을 징조며, 우물에 들어간 것은 옥에 갇힐 조짐이라고 풀이되던 것이었다. 가뜩이나 꿈자리가 사나워 두려움이 없지 않았는데, 점쟁이로부터 그러한 소리를 들으니 심기가 편할 리가 없었다. 경신은 문을 굳게 닫고 두문불출 사람과의 접촉을 끊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갔다. 그러나 경신은 그 무서운 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심약한 자신을 나무랐지만 그럴수록 그 천관사 우물이 시켜면 아가리가 아귀처럼 자신을 몸을 삼키는 환상에 몸을 떨어다. 아찬 이공을 시종으로 삼고 자신을 상대등으로 배하여 준 대왕의 큰 총애를 받은 지 어언 6년, 대왕께서 과인은 본대 비박하오, 대보에는 마음이 없었소. 백성이 곤궁하고 과인의 덕이 없어 백성의 바람에 부합치 못했소. 천심도 합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시는 것을 봐온 이래 펜스레 자신도 약해지고 두려워졌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 꿈으로 나타난 모양이었다.

꿈에 대한 생각과 괴로움으로 며칠이 지났다. 경신은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임금에게는 자신의 핏줄을 이은 후손이 있었기에 경신은 그것조차 불안을 더해주는 어느 한 요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되었다. 임금 주위의 제반 악은 제거하는데 앞장서고 여러 난을 평정하는데 세운 공으로 상대등에 올랐지만, 그건 모두 원형인 임금의 총애를 입음에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와병하여 생가를 불측하게 되었으니 나랏일의 장래가 걱정스러울 것이었다. 누워서 천정을 쳐다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전반측의 밤을 지새웠다. 임금이 무자하여 후사가 없음에 생각이 미치자 경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주원이었다. 주원, 그가 누구냐? 그는 위대한 조상 태종 무열왕의 6대손이 아니냐. 경신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주원의 단아한 용모가 떠올랐다. 그럴 때마다 경신은 몸을 한 번씩 크게 뒤척였다.

밤이 서서히 물러갔다. 봉창이 허이연 색깔을 드러내자 온 가지 새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일어나야지, 이런 때 일수록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꿈 따위가 무어냐 하며 마음을 다져먹어 보지만 몸이 조금도 움직여지질 않았다. 그때였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 노모인 계오부인에게 신성을 갓던 부인 김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이르는 것이었다.

“기침하셨습니다까? 여삼이 와 계십니다.”

여삼이가? 며칠 전부터 경신의 집에 출입을 자주하던 여삼이가 새삼스레 이렇게 이른 아침에?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소?”

“아닙니다. 문안인사 올리겠다고요.”

“새삼 무슨...”

“뭔가 말씀 아를 것이 있는 듯하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하오.”

“굳이 기다려 뵙고 가겠다 하여.”

“그래요?”

경신은 여삼이 뿐만 아니라 누구든 만나기 싫었다. 불편하고 불안한 심기를 누구에게든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

“몸이 아프다고 하시지요?”

“그렇게 말씀드렸습시다만 저렇게 뵙기를 청하니.”

“그럼 봅시다.”

여삼이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묻는다.

“어인 일로 소생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경신은 여삼의 당돌함에 마음이 흡족치 못했으나 몸이 아픈 척 했다. 여삼이 또 묻는다.

“소생이 뵙기엔, 대등계선 마음이 아프신 게지요? 심기가 불편하시지요?”

“음?”

“그렇게 보입니다. 상대등계선 무슨 일로 괴로워하십니까. 소생이 비록 아는 건 없습시다만 앞일을 예측하는 도리는 약간 익힌 바 있습니다. 심중을 말씀해 보세요.”

마음속의 것을 발설하기 어려웠으나 경신은 여삼의 채근이 싫지 않았다. 그의 은근한, 믿음직한 의태가 경신을 움직였다. 그래, 누군가와 터놓고 말하지 않으면 정말 병이 되지. 경신이 그런 생각이 들자 그 꿈 이야기를 털어 놓기 시작했다.

경신은 긴 한숨을 쉬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여삼이가 잠시 눈을 감고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재채거리는 새소리가 먼 들판에서 들려왔다. 여삼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이마에서 땀이 솟아났다. 여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선다. 그리고 양손을 높이 들더니 몸을 구부려 경신에게 큰절을 하는 것이었다.

“여삼, 이거 왜 이러는 거요?”

“상대등 김공 어른, 상서로운 꿈이로소이다. 공께서 후일 큰 자리에 오른 뒤 소생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소생이 공을 위해 해몽을 해드리리다. 사람을 물리쳐 주십시오.”

“여봐라, 잠시 물러가라.”

경신은 그의 태도에 호기심을 가지면서 사람을 물리치고 여삼에게 해몽을 청했다.

“상대등 김공 어른! 그 꿈은 이런 것이 옵니다. 사모를 벗은 것은 더 이상 높은 사람

이 없다는 것이고 갓을 쓴 것은 면류관을 쓸 징조이며 열두 줄 거문고를 안은 것은 십이대 손까지 대를 전할 징조이고 천관사 우물로 들어간 것은 대궐로 들어갈 징조입니다. 소생은 그렇게 사료됩니다.”

여삼은 말을 마치자 일어나 다시 두 번의 절을 했다.

“상서로운 꿈이옵니다. 몸을 보존하소서. 이제는 번뇌치 마시옵고 심기를 편히 가지소서. 공께서 이사금이 되실 겁니다. 부디 존체를 보존하소서.”

여삼의 해몽을 듣고 경신은 얼토당토않다고 생각했다.

“여삼, 이 무슨 해괴한 말썹이오. 내가 대위에 오르다니, 심한 말이 아니오?”

“소생의 해몽은 틀린 바 없고, 임금님의 아우 이신공께서 보위에 오르지 못하리란 법이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부디 심신을 보존하소서.”

“한 등급 위에 주원이 있지 않소요. 더구나 주원은 왕지족자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은 거역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 옅지요. 혹 공의 앞일이 의심스러우시면 확실히 해두는 한 가지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내 여삼의 말을 믿고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근자 심기가 불편하여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소. 좋은 방책이 있다면 들어 봅시다.”

“상대등 어른, 이렇게 하시지요. 남몰래 북천의 신에게 기도하소서. 그러면 대위는 공에게...”

“그만해두요!”

경신은 여삼으로부터 시선을 거두고는 방문을 열었다. 춘정월 찬바람이 몰려들어와 이마의 땀을 흠치고 달아났다.

그건 참언이야! 주원은 경신의 그 꿈을 이해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헛된 이야기로 사람의 마음을 회유하려드는 경신의 술수에 자신이 걸려들 수 없다는 각오로 그 이야기를 일축했던 것이다. 정월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비가 내리고 주원으로서 물바다가 된 알천땅을 건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의 아우이며 평소에 덕망이 높고 인군의 지체를 지니고 있으므로 경신을 대보에 올렸다니! 그리고 국민이 모두 만세로 환호했다니! 꿈이 들어맞고 그래서 점지하신 것이라니!

주원은 다시 떠날 것을 명했다. 김주원이 명주군왕으로 봉해져 명주로 가는 길, 우울함과 암담함이 노정의 도처에 어려 있었다. 그러나 주원에게 식읍으로 주어진 울진에 도착하면서부터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 근을어(평해), 삼척 그리고 명주에 도착하자 모여드는 백성의 환호소리와 명주도독의 정중한 예우는 주원으로 하여금 왕위 쟁탈에서 밀려난 괴로움을 다소 잊게 해주었다. 북으로는 익령(양양)까지 자신의 부임을 환영해주는 촌장들이 명주에 도착해 있었다. 백두대간의 동쪽, 동해바다에 면한 거의 전 지역

이 자신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어 있었다.

주원은 새로운 힘이 솟아 설레는 마음을 겨우 가누며 명주도독 김공을 만났다.

“김 도독, 그동안 심려 많으셨겠소. 새벌에서 아스라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 하슬라를 다스리느라고 고생하시었소. 허나 이제 걱정일랑 마시오. 내 김 도독과 더불어 남으로 울진에서 북쪽 익령에 이르기까지 좋은 땅에서 좋은 시절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소. 가히 격양가가 울리도록 함께 애써 봅시다.”

명주도독 김공이 허리를 숙여 새벌에서 부임한 새 통치자를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았다.

명주군왕 김주원이 새로운 땅, 미래의 땅, 명주에서 자신의 의지를 펴보려 이런저런 일에 정성을 다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주원은 중앙으로의 진출을 위해 여러 가지 모색을 했다. 그의 2대 후손 현창이 웅천주(공주)에서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 하여 나라를 세워 현덕왕에게 반란을 일으켰고(822년), 그 3년 뒤 3대손 범문이 여주 고달산에서 또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도 모두 주원의 왕권에 대한 도전 의지의 이어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주원은 왕권 재도전을 위해 마음에 칼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김주원의 명주군왕 2년, 신라 원성왕 2년(786년)에 그러한 주원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

주원은 어느 날 은밀히 사람을 떠나보냈다.

“이 서찰은 극비의 것이요. 아무도 눈치 채임 없이 조심히 다녀오도록 하시오. 천기가 누설되면 누구든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잊지 말도록!”

지엄한 영을 내려 깊은 밤에 몇 사람을 북쪽으로 가게 한 것이었다. 밀사들은 바람처럼 떠나갔다. 바닷가 해송사이로 난 소로를 따라 달빛 그림자를 밟으며 쉼 없이 달려갔다. 밀사들은 명주를 떠난 지 이틀 만에 익령에 도착했다. 그들은 밤을 기다려 낙산 동반으로 기어들었다. 벼랑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바다에서 파도가 흰 너울을 펄럭이며 모래밭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밀사들은 낙산사의 배나무 밑을 기듯 찾아들어갔다. 문무왕 시대에 의상대사가 세워 놓은 낙산사의 굴문을 들어서자 밀사들이 잠시 머뭇거렸다. 웅장한 가람이 동해를 바라보며 그 커다란 몸체를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밀사들은 자신들이 치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었으나, 낙산사의 존폐와 관계되어 있는 것임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으므로 부처님이나 신명의 노여움을 살 일은 아닌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지엄하신 명주군왕의 명이라 사명을 가지고 해내야 할 것임을 잊지 않았다. 군왕계선 ‘도의를 만나라’고 명했었다. 밀사들은 미리 알고 있던 곳이어서 아무도 몰래 도의가 거처하는 방장의 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그러나 달빛을 밟으며 문을 나선 사람은 도의대사가 아니었다. 그들로서는 알 수 없는 한 상좌승이었다.

“도의 선사계선 진전사에 드렸습니다.”

“진전사라면 설악산이 아니오이까?”

“그렇소이다. 나무관세음보살. 도의 선사계선 모든 일을 소승에게 맡긴다 하더이다. 시주계선 너무 심려치 마시고 서찰을 소승에게 주시면 될 것이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그들은 잠시 망설였으나 어쩔 수 없다 생각했다. 시간을 지체치 말라는 명도 있었기에 쉼 없이 달려오지 않았다. 이제 또 다시 설악산 진전사까지 가서 도의를 만난다면 일이 2, 3일 더 걸릴 듯했다. 그들은 밀지가 담긴 서찰을 상자승에게 넘겼다.

“너무 패념치 마소서. 김공 어른이나 도의선사가 하시는 일이나 소승이 바라는 바가 모두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불사가 크게 일어 중생이 극락왕생할 수 있다면 소승의 이생 시절의 인연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시주들께서 걱정 말고 돌아가시고 군왕 김공 어른께 큰 뜻을 굽히지 마시라 이르소서. 나무관세음보살.”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 경내에 뽀얀 달빛을 쏟아 부었다. 밀사들은 임무를 다했으므로 귀신도 모르게 낙산사를 떠났다.

김주원 명주군왕이 보낸 밀사들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소문은 그들보다 먼저 바람처럼 빨리 명주에 도착했다. 낙산사에 불이났대요! 낙산사가 다 타버렸다는구만! 낙산사의 뜨네기 상좌승이 분신했다는 소문이야! 처음 북쪽의 승방에서 난 불이 바람을 타고 건너뛰어 법당이 다 불타 버리고 말았다는구만! 까맣게 타 죽은 스님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고.

낙산사가 불타 사라졌다. 화재의 원인은 알 수 없었다. 누구의 짓인지, 아니면 실화인지도 알 수 없었다. 명주 군왕 김주원이 그리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낙산사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힘의 구조가 명주군왕의 어떤 명에 의해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고, 그로 인한 새로운 변화가 뜻하지 않게 화재라는 비극적 사건을 불러일으킨 것이지도 몰랐다. 낙산사 화재 사건을 보고받은 명주 군왕 김주원은 하늘을 우러러 보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아미타 부처여! 이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었소이다. 이것을 누구의 원망도 아닌 것이오이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오이다. 굽어 살피사 억만 중생께 자비를 베푸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새벽 중양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교종의 도량 낙산사는 하룻밤 사이에 꺼렇게 타 진토돼 사라져 버렸다. 이로서 교종은 영동지방에 발붙일 터전을 상실하고 만다. 그것은 김주원에겐 중양의 힘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운데 낙산사의 화재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 갔고 세월은 그로부터 60여 년이 흘렀다.

우리는 다시 범일국사에게로 돌아가자. 범일이 외가이자 고향인 학산 마을에 돌아간 시절엔 그렇게 이미 교종의 대사찰이었던 낙산사가 불타 없어진 지 오래 지난 때였다. 앞에서 이야기 되었거니와 김주원의 중앙 진출 의도에 의한 세력 구축은 아마도 중앙의 힘을 도와주는 교종의 축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는 점이다. 그런 관점에서 낙산사의 화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지, 김주원이 불타 없어지기를 원하거나 사주했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교종이 없어진 고향땅. 김주원 후손의 피나는 왕권 쟁탈의 투쟁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 이후지만 명주 땅엔 아직도 김주원의 세력이 확실히 자리하고 있었다. 이제 불사를 크게 일으켜 백성의 불심을 굳게 할 새로운 이념이 이 땅에 싹을 틔워야 할 바이었다. 그것이 또한 김주원계 김 씨들의 힘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기도 했다. 범일국사는 이러한 시세에 김공으로부터 초청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우리는 범일국사가 오독데기가 울려 퍼지는 명주 학산 마을에 있는 굴산사에서 지내는 동안 어떤 극적인 사건을 벌일 것이란 기대는 가질 수 없다. 불제자로서, 불문에 들은 사람으로서 그가 한 일은 지극히 단조로운 것일 터이며, 동시에 위대한 업적, 즉 자기 자신을 뛰어 넘으려는 각고의 행적이 있었을 따름이다.

더구나 천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로서는 그의 생활이나 일생의 전부를 알기에는 자료가 너무 소략함에 아쉬워한다. 범일이 김주원 혹은 그의 후손들의 중앙 진출 의지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는지, 명주도독 김공이 범일로 인해 정치적 세력을 얼마나 더 확장시킬 수 있었는지 그런 것을 알 도리는 없다. 다만 범일로 인해 그 지방에 있었던 교종의 잔여 세력이 완전히 없어졌고 선종이라는 새로운 법문이 흥분했음이 분명해 졌다는 사실 만은 확인할 수 있다.

명주도독 김공이 굴산사의 단월로서 굴산사를 베풀고 범일을 주지로 조치한 이후 달라진 것은, 다시 말하면 범일이 굴산사를 맡은 이후 변화된 것은 지금의 우리로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나말 선종 9산의 성격은 변방적이고 지방 세력에 근거한 독자성을 지닌 것이었다. 나라 전체로서는 북방의 한 구석에 위치한 명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변방적이고 주변적인 선종의 세력이 커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범일에 의해 이 지방에서 신라 하대 9산 선문 중 사굴산과의 본산인 굴산사가 융성한 것이다. 범일은 낙산사의 중창도 건의해서 낙산사 화재 사건 이후 70여 년이 지난 현강왕 2년에 선종으로 바뀐 낙산사로 다시 서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척 삼화사도 범일에 의해 개창되었다. 이 두 절의 중창과 개창은 영동지역의 사찰이 굴산사를 중심으로 선종으로의 회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모두는 명주도독에 힘입어 범일이 이룩해 놓은 것이다. 범일에 의한 굴산사는 이 지방

의 중심사로서 뿐 아니라 사굴산과의 본산으로서 많은 문도를 통한 융성을 가져왔으며, 이 세 사찰이 건립됨으로써 이들이 명실 공히 영동지역의 사상적 중심 도량을 형성했던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때는 진성여왕 3년(889년) 명주도독 김공의 힘을 입고 자신의 불심으로 미약하나마 사상과 이념의 통일을 거쳐 왔다고 생각할 때에 범일의 나이는 이미 80이 되고 있었다.

범일은 날로 몸이 쇠약해가는 것을 느꼈다. 지난해 겨울을 넘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길게 느껴졌다. 범일은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늦은 봄날, 화사한 꽃들이 시름시름 잎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철쭉도 빛을 잃고 시들어갔다. 사굴선문의 시조로서 지내온 40년, 법문에 든 지 60년. 그간 진실로 무엇을 하였나? 내가 이루려 한 바가 얼마나 실현되었나? 중생 구제를 위해 진정 나는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나?

범일은 어느 면에서는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시주와 추종, 날로 번창해 가는 사문의 문도들을 생각할 때에 미력하나마 고향 땅에 돌아와 지낸 오랜 세월이 뜻없는 바도 아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범일은 굴산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문 자신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무엇이 그토록 범일 자신을 이곳에 머무르게 하였을까도 생각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이미 저쪽 세상으로 돌아가신 이 땅이 왜 그토록 범일에게 머물도록 요구하였을까.

범일이 한때 유혹을 받지 않은 바는 아니었다. 경문대왕, 헌강대왕, 정강대왕께서 범일을 흠양하여 국사로 모시고자 사자를 보내 새별로 데리고 가려할 때 심적 갈등을 느끼지 않은 바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학바위 아래 맑은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유혹을 참아 내려고 애썼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다.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허물은 속된 욕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함에서 생기는 것...

선은 순수한 집중인 동시에 철저한 자아 응시가 아니더냐. 나의 산철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난 것. 이제 어딜 가려 하느냐 하며 참아냈던 것. 청렬의 한 산그늘이 내리는 아늑한 즐거움이 있는 이 곳, 송림의 그윽한 향내가 피어나는 이곳을 벗어나서 더 무엇을 얻으려 하느냐 하며 자신을 이겨냈던 것이다.

푸드득 푸드득.

저쪽 송림으로 새들이 날아 사라졌다. 범일은 지난 시절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즐기면서 4월 고적한 경내를 천천히 걸어갔다. 걷는 다리엔 힘이 없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했다. 범일은 입 속으로 중얼거렸다.

범일은 옛날을 떠올렸다. 왕자 의종과 당에 들어가서 마조의 염관제안 대사의 문하에서 수업할 그때를 생각했다.

“염관제안 대사님.”

“무슨 일이 있는고?”

“여쭙어 볼 말씀이 있어서.”

“뭐?”

“이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시지는 마옵소서. 매시마다 아니 찰라마다 느끼는 것이 읍니다.”

“무엇이지?”

“대사님...”

“말해 보래두.”

“어찌하면 성불할 수 있사옵니까?”

“그것이 궁금한고?”

“그렇사옵니다.”

범일은 부끄러웠다. 제안대사가 웃을 때는 어디 탐 뒤라도 돌아가서 몸을 숨기고 싶었다. 6 년이 되어가는 그즈음에 새삼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고 뉘우쳤다. 그러나 사실 유학생살이 조금은 힘들고 그만큼 회의와 번뇌가 많아지던 것이었다. 대사께서 부도가 열해 서 있는 사찰 뒤쪽으로 걸어가며 대답했다.

“범일, 누군든 성불을 쉬 얘기할 수 있겠나. 허나 그대에게 내 잠시 말할 수는 있어.”

“대사님.”

“도란 쓰고 닦는 것이 아니야. 다만 더럽히지 않는 것이야. 부처님께서 보고 보살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 말게나. 평상심이 도야!”

염관제안 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장면을 상기하며 범일은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 학바위가 저만치 바라보였다.

범일은 4월의 따뜻한 햇살이 탐 너머 지붕 위를 내리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경내, 산림 속에 앉아 40여 년 도열한 소나무가 도를 행하는 성곽이었고, 평평한 돌바닥이 그대로 선을 하는 자리였다.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 순간 해본다. 그러면서 걷는데, 그때 개청, 민규, 흠풍 등 여러 제자들이 범일의 옆에 와 따른다.

흠풍이 물었다.

“어찌 하는 것이 도사의 뜻이옵니까?”

범일은 조용히 대답했다.

“6대까지 거듭 잃지 않음이니라.”

민규가 물었다.

“어찌하면 승려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까?”

그 물음에도 즉시 대답했다.

“불문에 있어서는 계급을 답습지 말라.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깨달음에는 쫓아갈 수 없느니라.”

문덕 2년 기유년 4월.

범일국사는 갑자기 문인을 찾았다. 문하도인들이 주지의 방장에 황급히 모여들었다. 범일이 문하도인들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80 세의 범일국사의 저승 꽃 피어난 얼굴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덮여 있었다. 범일국사가 입술을 움직였다.

“나는 장차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 이제 비로소 영원히 이별하리니 그대들은 알고 천한 뜻으로 어지러이 슬퍼하지도 말 것이고 마음 상하지도 말라.”

그러나 누군가 조금씩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다. 오열의 어깨 들썩임이 방안을 조금씩 무너뜨렸다. 범일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다만 스스로 마음을 닦고 종단의 이념을 실추시키지 말라.”

자정을 넘겼다. 다음날인 5월 1일 범일국사는 굴산사 상방에서 입적했다. 경내엔 밤새 송화 가루가 하얗게 가라앉았다. 범일국사는 자신이 태어난 학마을 굴산사에서 춘추 80, 승하 60의 생을 마친 것이다. 어딘가에서 학의 날개짓 소리가 구천을 날아오르는 듯 들려왔다.

범일국사에겐 통효대사라는 시호가 내려지고 탑명은 연취지탑이라 명명되었다.

나라의 북쪽에 있는 이 마을에는 천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범일국사의 일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 되었으니 새삼 말할 것은 못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5월 5일 수릿날마다 다시 떠올리니, 그의 삶과 죽음은 여직 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다.

대관령 아래 터 잡고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 김유신지신을 모셨다. 세월이 흐르면서 차차 범일국사를 성황신으로 모시고 있으니, 그 가장 드러나는 행위가 단양제 행사다. 그것은 범일을 위한 행사임과 동시에 일종의 동신제인 것인데, 우리는 그곳에서 그 지방민의 끈질긴 향토신사를 통한 이념의 통합과 주민의 단합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범일의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단양제의 면모를 살피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의 관심은 범일에 있으므로 범일 그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가자.

대오한 범일국사가 부처가 되어 극락왕생했겠지만, 지방 사람들은 범일이 그곳을 떠나 먼 곳으로 가버리길 원치 않았다. 살아 굴산사에서 중생의 정신적 지주로 있었듯 죽어 대관령 산신이 되어 지방을 살피야 했다. 사람들은 범일에게 그렇게 해주길 원했다. 그랬으므로 죽어 육체는 다비됐지만 영혼으로 이승에 남은 범일은 어느 즈음에 대관령 국사 성황님이 되었다. 민중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되어야 하므로 범일은 주저하지 않았다. 살아 고고한 법문에 들어 외롭게 살아온 범일이 죽어 대관령에 살며 더 인간적

이고 더 따뜻해져갔다. 고통스런 백성과 더불어 신인 채로 인간인 채로 살아야 했다. 그들의 눈물과 한숨과 막힘과 원한을 풀어주어야 했다. 범일은 자신의 속화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진실에 가까운 것이었으므로 범일은 죽으면서 새로 태어난 것으로 생각했다. 범일은 철저히 자신을 사람과 더불어 살아 있을 수 있는 곳에 놓아두고자 했다.

범일국사가 변모하여 대관령에 살면서 더 인간적으로 되어감과 동시에 다시 외로움을 느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음양에 의한 우주적 화합 없이 사는 것은 자신을 전능한 위치에 놓아두는 것일 뿐이요,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국사성황님의 지엄하고도 위압적 모양 그것으로는 자신에게는 물론 사람들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었다. 그랬으므로 어느 날 범일은 드디어 자신을 피 끓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할 결심을 굳히고 산을 내려간 것이다.

그즈음 마을에는 아리따운 한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 처녀는 최돈독(혹은 최준집)씨택에 사는 동래 정 씨 정현덕의 과년한 딸이었다. 범일은 그 정 처녀 앞에 나타났다. 정 처녀가 깜짝 놀라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아서며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 낭자, 두려워 마오. 나는 산에 살며 적요의 날을 지내오. 내가 그대들의 신이라면 나는 그대들에게 살아 있는 신으로 있고 싶소. 죽어 두렵고도 딱딱한, 정신이 바랜, 전설 같은 관념의 신이고 싶지 않아요. 정 낭자, 그대는 나와 함께 살지 않으려요? 바라건대 내 사자와 함께 내가 있는 곳으로 오소서. 현상으로 짧게 사느니 본질로 영원히 사시오. 내 그대를 데리고 가리오.”

범일국사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황공스러움으로 자신의 뜻을 좇기를 두려워할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이미 그것은 정해진 일인 것이기에 정 처녀를 산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했다. 정 처녀는 단장하고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꿈에 나타난 국사 나라 성황님의 빛나던 안광에 찔려 꿈쩍할 수 없었던, 가슴이 설레던 지난밤의 꿈을 떠올렸다. ‘내 그대를 데려 가리오!’ 하던 그 낭랑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

범일이 나타났다.

소리 없이 마치 바람처럼, 영혼처럼, 그림자처럼, 이승의 온갖 번뇌를 쓸어가듯 범일은 정 처녀를 업고 산속을 달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대관령 국사성황은 정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 범에게 물려간 것을 안 정씨 집에서 국사성황을 찾아가보니, 정 처녀는 성황과 함께 있는데, 벌써 죽어 정신은 없고 몸만 비석처럼 서 있었다. 정 씨네 사람들은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라 믿었다. 정 씨네 사람들이 희비를 뛰어넘은 얼굴로 화공을 불렀다. 화공에게 정 처녀의 화상을 그려 세우라 일렀다. 그리 했더니, 정 처녀의 몸이 바위에서 떨어졌다. 그들은 정 처녀의 영혼은 성황에게 맡겨두고 그녀의 몸을 데려와 장사지냈다. 그리고 여성황사를 만들어 위패를 모셨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음력 3월 20일 신주근양으로부터 5월 7일 팔단오 소제와 봉송에 이르는 근 50 일 동안 국사 성황님과 정씨 매화부인 여국사 성황님을 기리는 곳을 즐거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범일국사의 삶은 영원 속에 있다. 사람들이 시간에다가 매듭을 맺고 또 다시 풀며 살아가지만 범일의 삶 속에는 차라리 시간이란 없다. 우리의 짧은 인생들은 다만 무한 시간 속에서 살아있는 범일을 위한 노래만 들을 수 있을 따름이다.

남산 부중아 해동 조선국
면잔좌도 칠십일곽
일흔이가 한도잔이요
을축년아 을축월에 자시자방을
생하실 적 그때 그 시절부텨
오백 년을 내려오신 국사성황님네
아무쪼록 아 만당의 장에 나가시자고
축원하오실 적에...

(끝)

제3회 강릉단오제 발전을 위한 축제 포럼

2014 강릉 단오문학 조명 세미나

— 유네스코 등록 9주년에 즈음하여 —

Ⅰ 일시 2014년 11월 24일(월) 오후 1시~오후 5시

Ⅰ 장소 강릉단오문화관 세미나실(2층)

Ⅰ 주관 관동문학회

Ⅰ 후원 (사)강릉단오제위원회

2014 강릉 단오문화 조명 세미나 | 유네스코 등록 9주년에 즈음하여 |

관동문화회